

# 나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만들기

## - 일기를 바탕으로

고성일

지도교사 박상현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와 목적 2. 연구 방법
	II.본론	1. 수필 1) 수필이란? 2) 보편적인 수필과 내가 쓴 수필 2. 일기 1) 일기란? 2) 나의 일기방식과 수필과의 연관성 3. 사전준비 1) 개인 프로젝트 2) 상현쌤과의 활동 3) 독서 4. 나의 글

		<p>1)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1) 글 설명</p> <p>2) 새출발 (1) 글 설명</p> <p>3) 말 한 마디 (1) 글 설명</p> <p>4) 고운말 (1) 글 설명</p> <p>5) 이번만큼은 뼈에 새기리라 (1) 글 설명</p> <p>6) 비로소 ‘나’ (1) 글 설명</p> <p>7) 1차 퇴고 과정</p> <p>(1)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2) 새출발 (3) 말 한 마디 (4) 고운말 (5) 이번만큼은 뼈에 새기리라 (6) 비로소 ‘나’</p> <p>8) 2차 퇴고 과정</p> <p>(1) 퇴고 전 평가(소수 학생들, 선생님) (2) 2차 퇴고</p> <p>9) 3차 퇴고 과정</p> <p>(1) 퇴고 전 평가(전문가) (2) 3차 퇴고</p>
	<p>Ⅲ. 결론</p>	<p>1. 간디인 평가</p> <p>2. 책자</p>

	3. 자기평가
	4. 연구의 성과와 한계

## I. 서론

### 1. 논문의 동기와 목적

#### 1) 논문의 동기

<나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만들기>라는 본 논문은 3학년 논문 발표가 다가오는 10월이 다 돼서야 바꾼 주제다. 5개월 동안 진행하던 논문을 포기할 정도로 나의 정신 상태는 망가져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글쓰기를 접했는데, 드림 논문과는 달리 굉장히 재미있고, 나에 대해 고찰하며 글을 써 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런 글쓰기는 2019년으로 논문을 넘길 것을 알면서 바꿀 정도로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원래 주제대로 했다면 최근 있었던 작품 발표도 할 수 있었고 1차 통과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논문으로 하고 싶은 것은 '1차 통과'가 아닌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하기 싫고 의미 없고 힘들기만 한 논문을 할 바엔 1차 통과는 하지 못 하더라도 나에게 발전이 있는 논문이 하고 싶었다.

#### 2) 논문의 목적

나의 삶이 생생히 담겨있는 '일기'를 통해 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장지점은 언제인지 등을 생각해보며 '나'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고찰을 해본다.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글을 다수 수정해 나가며 더욱더 나은 글을 만듦으로써, 글쓰기의 실력을 향상한다.

## 2. 연구 방법 및 계획

1. 이석원, <보통의 존재> 이석원.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장영희,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국어 시간에 수필 읽기 1>. <창의적 글쓰기>. <국어 시간, 수필에 빠진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 <소란> 등의 수필, 글쓰기 관련 서적을 읽으며 수필과 글쓰기에 대해 공부한다.

2. 김수진 선생님과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단순 책 읽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필, 글쓰기에 접근하며 배운다.

3. 나의 일기를 돌아보며

4. 평가를 받고 퇴고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여 보다 나은 글을 완성 시킨다.

## II.본론

### 1. 수필

#### 1) 수필이란

1)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는데, 작가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머, 위트, 기지가 들어있다.

## 2) 보편적인 수필의 구조와 내가 쓴 수필

사전적 정의가 말하고 있는 ‘수필’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내가 쓰고자 하는 수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피천득 - 인연

지난 사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聖心) 여자 대학에 가 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 수녀님과 김 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서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열 일곱 되던 봄, 나는 처음 도쿄(東京)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 교육가 M 선생 댁에 유숙(留宿)을 하게 되었다. 시바쿠(芝區)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書生)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朝子)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낳았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 뜰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일년초(一年草)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 피이를 따다가 화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 주었다. 스위트 피이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 여학원 소학교 일 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學部)까지 있는 카톨릭 교육 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 주었다.

내가 도쿄를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그 후, 십 년이 지나고 삼사 년이 더 지났다. 그 동안 나는, 국민 학교 일 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도쿄에 갔던 것도 사월이었다. 도쿄역 가까운 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M 선

1) 네이버 국어사전

생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令嬢)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 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 때, 그는 성심 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 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보를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 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 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聯想)한다. '셀부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 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십여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제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거나 았으나, 남편이 전사(戰死)하지나 았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도쿄에 들러 M 선생 댁을 찾아갔다. 뜻밖에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M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 내외분은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잘 됐다고 치하(致賀)하였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맥아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뽕족 지붕에 뽕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이십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곁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십 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뽕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 같이 시들어 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십 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

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표현력이나 문장력 등은 뒤로하고, 크게 봤을 때 먼저 이 글에는 자신의 이야기(사건)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한 자신의 깨달음(교훈)을 문학적으로 풀어내었다.

두 번째로, 이 글은 올라갔다가 내려온 듯한 그래프를 보듯 순서와 구성이 짜여있다. 그 예를 들어보겠다.

지난 사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첫 문장이다. 본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로 조심스레 시작한다.

나는 성심(聖心) 여자 대학에 가 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 수녀님과 김 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이어지는 문장이다. 조금씩 퍼즐을 맞춰 나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쿄역 가까운 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M 선생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令嬢)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 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 때, 그는 성심 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어느덧 이 글은 한창 '본론(자신의 이야기)'을 말하고 있다. 가장 끊김 없이 말하는 부분이며,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은 진지함과 근엄함이 묻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10 정도로, 그만큼 본론이라는 것은 글의 전개나 분위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부분이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다 강한 어조가 조금씩 사그라들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깨달음(교훈)을 전달한다. 그리고 일절 다른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 짓는다.

이러한 글 구성은 읽는 이의 가독성을 더 해줄뿐더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낳는다.

### 3. 자신의 이야기와 그것을 통한 깨달음(교훈)

4. 1에서 10으로, 그리고 다시 1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보편적인 ‘수필’의 필수적인 요소다. 내가 쓴 수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쓰고, 나의 깨달음과 성장지점을 담았다. 또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읽는 이의 가독성을 위해 앞서 말한 구성을 나의 글에 입히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으로는 솔직함이 있겠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나는 ‘일상의 솔직함’을 담은 책에 많은 감명을 받았었다. 비록 ‘보편적인 수필’에 해당하는 요소는 아니나, 개인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요소였다. 과장이나 화려한 걸치레는 털어버리고 진솔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 2. 일기

### 1) 일기란?

2)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

### 2) 나의 일기방식과 수필과의 연관성

앞서 말 했듯이 일기는 특정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날마다 겪은 개인의 일, 생각과 느낌 등을 적는 개인의 ‘기록’이다. 여기서 수필과 조금 비슷한 점이 있다. 바로 개인의 일과 생각을 적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나의 작품 중 하나인 “이번만큼은 뼈에 새기리라”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화가 나면 무작정 욕을 쓰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면 우와아아아아- 같은 문장들을 일일이 손으로 쓸 정도로 나의 일기는 굉장히 솔직하고도 서정적이다.”

또 이런 문장도 있다.

“그래서 나의 지난 일기들은 좋은 글감이 되기도 한다. 내 일기의 특성상 어떤 일이 있으면

---

2) 표준 국어대사전(네이버)



정확하게 기록할뿐더러 생각이나 솔직한 감정까지도 적어놓기 때문에 내가 쓰려는 ‘수필’의 글감으로는 제격인 셈이다.”

앞서 **대 주제1**에서 기재 했듯이 보편적인 수필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다. 일기는 그런 나의 이야기가 잘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서까지도 되돌아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부제목으로 선택하였다.

### 3. 사전준비

#### 1) 개인 프로젝트

3학년 2학기에 김수진 선생님과 함께 글쓰기 개인 프로젝트를 했다. 물론 순서상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논문을 시작한 것이지만, 김수진 선생님과 진행 한 개인 프로젝트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배운 것들을 본문에 기재하는 바이다.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수필의 구조와 전개’에 관한 것을 배웠다. 글 하나를 읽고, 구조와 전개에 관한 것을 문단으로 묶어 가르쳐 주셨다. 처음에 나왔던 ‘보편적인 수필의 구조’ 부분은 이때 배운 것을 토대로 나의 말로 풀어쓴 것이다.

수진쌤은 수필을 많이 읽어봐야 한다고 하셨다.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분석해 가면서 읽으라고 배웠다. 문단을 보며 전개나 구조를 파악해보고, 좋았던 표현이나 문장도 적어놓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날부터 나는 좋았던 표현, 문장도 적어놓기 시작했고, 수진쌤 말씀대로 ‘분석’을 하며 읽게 되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나의 글을 수진쌤이 봐주는 형식으로 글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침표 사용과 문단 나누기 같은 부분에서 나의 안 좋은 습관이 많았는데, 수업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부터 개선해 나갔고, 그 후에 문장이나 제목, 적절한 단어사용 같은 것들을 지적받고, 수정 해 나가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 수업에서는 문장을 멋있게 쓰는 방법이라거나, 문학적인 표현을 중점에 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하기 전에 수필이라는 것의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원리를 파악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글을 처음 접하는 나에게는 정말 적합한 수업이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

내 작품은 남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나의 글을 남에게 보여 주는 것을 무

척이나 꺼려했다. 그만큼 부끄럽기도 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글'만 남한테 보여줬었다.

하지만 수진쌤은 항상 남에게 보여 주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더라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보여 주기 시작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받은 피드백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 나면서 지금은 나의 글을 보여 주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많이 사라진 편이다.

## 2) 상현쌤과의 만남

당시 내 논문 지도교사 이셨던 상현쌤이 언질을 많이 해 주셨다. 첫 번째로는 읽을 책 고르기 였는데, 상현쌤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골랐다. 상현쌤은 수필 서적 뿐만 아니라 글쓰기 자체에 대한 책도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내가 읽기 알맞은 책들을 고르고 그 날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현쌤이 나에게 한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 없이는 절대 좋은 글을 쓸 수 없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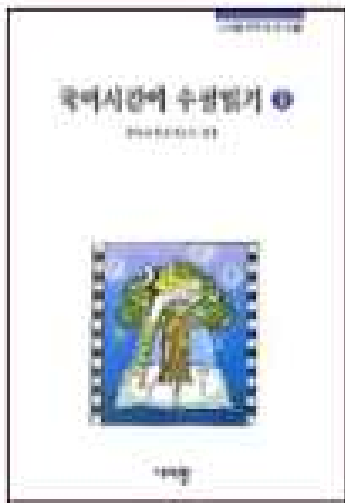
또한, 좋은 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 해주셨는데, 좋은 글은 엄청나게 교훈이 있고,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하셨다. 나의 글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다.

당시 나는 내 글에대한 자존감이 없었다. 다른 글을 읽다보니 내 글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창피했었다. 상현쌤은 이런 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글 집들을 보여주셨다. 15학번 홍수정 선배의 에세이 집을 보여주셨고, 선배들이 글쓰기 수업에서 쓴 글을 보여주시는 등 학생들의 글을 많이 보여주셨다.

그 글들은 나의 글과 같이 이렇다할 특별함이 없었다. 그냥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신'에게 좋은 글들이었다. 생각보다 특별함이 없었고, "나도 이 정도는 쓰겠는데?"하는 생각자들 정도로 평범한 글들이었다. 이런 글들은 나의 기준을 낮추어 주었고, 덕분에 나는 부담을 많이 덜을수 있게 되었다.

### 3) 수필서적 독서

#### (1) 국어시간에 수필읽기 - 전국 국어 교사회 엮음



이 책은 너무 어려운 글을 읽지 말고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글을 읽어 보라고 상현, 수진 선생님이 추천 해주셔서 읽었다.

잘 쓴 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직한 글이라는 것을 강조 하였고, 이 글들을 보면 “글쓰기라는 것이 대단한 그렇게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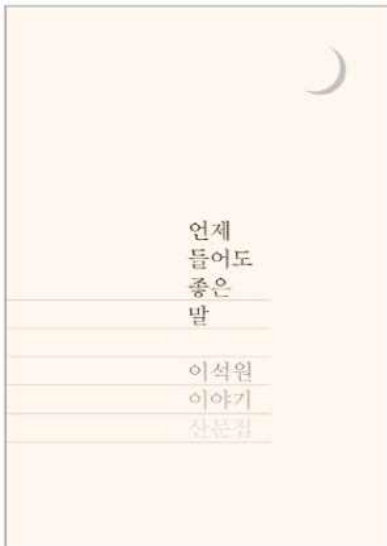
그 전까지 나는 글 쓰기 라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많이 느꼈다. 나는 개인 프로젝트 수업이 나, 유명 작가가 쓴 소위 ‘대단한’ 글들만 봐왔었는데, 그런 어른들의 복잡 난해한 글만 보다 보니 나에게 “이런 글을 써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었던 터였다.

이 책을 읽어보니, 의외로 글쓰기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또래 나이대가 쓴 글 들이다보니 그 전까지 읽어왔던 글에 비해 어리숙한 느낌도 많이 있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다. 물론 20년 된 책이긴 하지만 공감 되는 것도 많고 재밌어 글이 잘 읽혔다.

덕분에 강박에서 많이 벗어났다. 내가 써야 할 글은 화려한 겉치레로 치장하거나, 어려운

말을 막 넣고 복잡한 의미를 부여하는 글이 아닌, 단지 솔직하고, 사람들에게 잘 읽힐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었다.

## (2) 언제 들어도 좋은 말 - 이석원



### 감상평

글쓰기 논문 초반에 내가 갈피를 잡는 것에 크게 도움을 준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책이 특별한 메시지 같은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냥 음악을 하고 글을 쓰는, 40대 남성 이석원만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산문집이다.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단순 존경심부터 시작해서 글의 구성, 표현력 등에 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은 솔직함, 중간 글, 표현력(문장력) 등 크게 3가지 정도가 되겠다.

우선 솔직함이다. 난 이 사람의 솔직함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책의 원고를 쓸 때 출판사의 원고 독촉문자를 몇 번이나 받고 시작한 원고 작업이라고 본인 입으로 밝히지 않나, 심지어 이 책 초반에 당시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욕설이든, 뒷담 화이든, 자신의 속마음을 꺼림 없이 풀어내기도 했고, 심지어 애인과의 성관계를 조금이지만 말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난 이 작가의 솔직함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겉치레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자기 자신'을 솔직 담백하게, 묵묵히 풀어내는 문장들이 너무 내가 쓰고자 하는 글과 비슷했다. 이 작가의 지나칠 정도의 솔직함을 보며 이런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중간 글이다. 이 중간 글은 앞장과 뒷장을 이어주는 시 느낌의 짧은 에세이인데, 이 역시 솔직하다. 내가 느끼기에 이 중간 글이라는 것의 장점은 앞장에서 이야기의 흐름상 못다한 이야기를 이 글에서 하고 상황에 대한 독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얻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신선했다. 이런 식의 진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뿐더러 중간 글의 문학적 표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글을 보니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잘할 수 있었고, 많은 글을 보다가 한 호흡 쉬는 느낌도 있어서 여러 모로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나의 글에도 이런 중간 글을 넣었다. 나도 하나의 글을 다 쓰고도 흐름상 하지 못한 이야기가 미처 남아 있었고,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를 넣었다. 이 글을 넣기 전에는 글을 끝내 고도 찻찻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면, 이 중간 글을 넣기 시작한 후부터는 후련한 마음이었다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이 중간 글이라는 것이 나의 논문 목표 중 하나인 '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 같다.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을 쓰면서 더욱 솔직하고 세밀한 감정과 생각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 2)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장영희



## 감상평

가장 많은 도움이 됐던 책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이석원 작가의 글에서 새로운 솔직함과 글 방식을 봤다면, 장영희 작가의 글에서는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수필'을 봤다. 나는 장영희 작가의 수필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물론 글에 감동도 있었다. 암과 투병 중임에도 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감동적이었던 것도 있었다. 글이 굉장히 대단하면서 마음에 들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내 작품에 참고했던 장영희 작가의 단어 선택과 글 구성, 문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먼저, 너무나 잘 읽히는 글이었다. 형식적이고 딱딱한 글이 아닌, 솔직하면서 간결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듯 말하는 듯한 어조가 좋았다.

처음 읽게 된 이유는 수진쌤과 은정 선생님의 추천이었다. 수필을 쓰려면 꼭 읽어봐야 한다고, 수필의 정석과 같은 책이라고 해서 읽어봤었는데, 이 작가처럼 글을 쓰고 싶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위에서 말한 보편적 수필의 정석인 피천득의 <인연>과 같은 구성의 수필이 30여 편 정도 들어있고, <인연>보다도 읽기가 쉽고, 이해가 잘 되며, 솔직하다. 무엇보다 묵묵하고 조곤조곤한 어조이면서도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강렬한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또 한 가지는 단어 선택이다. 단어 선택이라는 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어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단어에 따라서 문장의 느낌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 중에는 단어 선택에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 많다. 자칫 단어를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도 단어에 민감한 편에 속하지만, 이 책을 보고 단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지금까지 내가 썼던 단어들은 너무나 한정적인 것들이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책을 보면서 좋았다고 느낀 단어, 내 글에 인용되었으면 하는 단어들을 모조리 적었다. 어떤 문장에 사용됐는지까지 적어놓으면서, 내 글을 쓸 때 참고, 인용하였다.

처음 보는 단어도 많았다. 이런 단어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내 글에 들어갔으면 하는 단어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참고했다.

결론적으로 내 글은 좀더 단어들이 조금 더 풍성해졌다. 단어가 반복되는 일이 줄어들었고, 단어로써 조금 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느낌을 더 잘 전달했던 것 같다. 읽는 이에게도 가독성을 더해줄 것 같다.

내가 참고, 인용 한 단어 몇 가지와 예문을 적어보겠다.

먼저 '적이'라는 단어(부사)이다. 사전에는 '꽤 어지간한 정도로'라고 나와 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많지만, 그런 단어와는 색다른 느낌을 들게 하고, 좀 더 내가 말하려는 느낌과 비슷해서 인용했다.

예문> 지난 일기를 본 나는 적이 놀랐다.

그다음은 '타성'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용화가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다지 지식이 많지 않았던 나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고 있었다. 마침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필요한 찰나에 이 단어를 발견해서 인용했다.

예문> 지나친 욕을 해대는 것은 나의 타성이 되었다.

나는 사실 단어 말고도 문장이 시작할 때 쓴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등등의 말들도 좋았다. 특히나 장영희 작가의 이런 문장 중에는 "그건 그렇고" 같은 말들로 시작하는 문장도 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이는 가독성을 더해주시기도 했다.

나도 이런 글들을 보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부담을 덜고 최대한 가볍게 쓰려고 했고,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풀어내듯이 쓰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빠른 이해를 위해 장영희 작가의 글을 조금 인용 해보겠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中

하루는 저녁 무렵에 TV를 보는데 유명한 보쌈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보쌈 만드는 과정을 보여 준 다음, 손님 중 한 중년 남자가 목젓이 다 보이도록 입을 한껏 크게 벌리고는 큰 보쌈 하나를 입에 넣더니 양 볼이 불룩불룩 움직이게 씹어서 꿀꺽 삼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상갓집에 가면 보통 육개장, 송편, 전 등 자금자금한 음식들이 나오고 상추쌈이나 갈비찜 같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상갓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련을 남긴 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는 아무리 하찮은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없는 망자 앞에서 보란 듯이 입을 꺾 벌리고 어적어적 먹는 것은 무언무언의 횡포라는 것이다.

보쌈을 먹고자 입을 크게 벌린 그 남자의 결렬한 식탐, 꿀꺽 삼키고 나서 그의 얼굴에 감도는 찬란한 희열, 그 숭고한 삶의 증거 앞에 나는 지독한 박탈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세상으로 다시 나가리라, 그리고 저 치열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나타났다.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자꾸 감기는 눈을 반쯤 뜬 채 화장실에 갔다가 밥을 먹고, 늦어서 허겁지겁 학교로 가는 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젠 목젓이 보이게 입을 크게 벌리고 보쌈도 먹고 상추쌈도 먹고 갈비찜도 먹는다. ‘어부’라는 시에서 김종삼 시인은 말했다.

바닷가에 매어 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 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좋았던 것 같다.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이 없었으면 이런 좋은 글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딱 일어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만을 담기 보다는 다른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야기하면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좋고, 읽기 쉬워지고, 전달하려는 것이 더 잘 느껴졌었다.

이것 말고도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장영희 작가만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영희 작가의 글 구성을 닮게 된 것 같다.

논문을 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는 장영희 작가인 것 같다.



### 3) 문학의 숲을 거닐다 - 장영희



#### 감상평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읽고 이 작가에게 많은 감명을 받아 방학 중 이 작가의 책을 구매 후 읽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만큼의 임팩트를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역시 장영희는 장영희더라. 고유의 유머러스함과 문장력, 단어, 구성 등은 감탄을 자아냈다.

이 책을 읽음으로서 장영희 작가의 느낌을 좀 더 받아들인 것 같다. 많이 읽을수록 닮는 거 아니겠는가. 물론 장영희 작가의 구성과 특유의 느낌이 닮았다는 것이지 장영희 작가처럼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가장 좋았다고 느낀 수필을 조금 인용해 보겠다.

꿈꾸는 아버지 中

<세일즈맨의 죽음>은 산업화되고 물질주의화된 현대문명 속에 처음 막이 오르면, 율리는 견본이 가득 든 무거운 가방을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세일즈 여행에서 돌아오는 그의 어깨는 축 처이며, 그 가방 안에는 어떤 견본이 들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율리가 팔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다.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릴 때, 끝까지 깊은 연민과 이해로 남편을 지키는 린다는 말한다.

“너희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란 건 아니야, 율리 로우맨은 큰 돈을 번 일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난 적도 없어, 하지만 네 아버지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대해 드려야 해. 늙은 개처럼 객사를 시켜서는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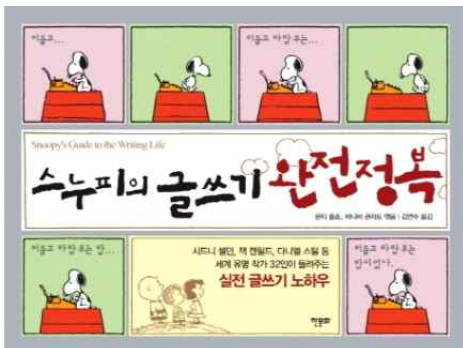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율리 로우맨처럼 큰 돈을 버는 일도, 신문에 이름이 나는 일도 없다. 가끔씩 '인생역전'의 허무맹랑한 꿈도 꾸어 보지만, 매일 매일 가족을 위해 더러워도 허리 굽히고 손 비비며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들은 가슴속에 꿈 하나 숨기고 자신을 팔기 위해 무거운 가방들고 정글 같은 세상으로 나간다.

뭐 어쨌든 이런 구성과 느낌을 가지고있는 글이 나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었던 것 같다.

앞서 말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신비로움, 경외심을 느꼈다면 이 책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봤던 것 같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요소나 느낌들을 조금은 흡수되지 않았나 싶다.

#### 4) 스누피의 글쓰기 완전 정복 - 몬티 솔츠, 바나비 콘라드



## 감상평

사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은 크게 없다. 하지만 안 좋은 습관을 고치게 해준 부분이 몇 개 있던 것 같다.

이 책은 보통의 책처럼 한 내용이 이어져 있는 구성이 아니다. 각 장 별로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에 따른 설명이 있는 방식인데, 그래서 목차에서 원하는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는 점이 편리했던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새벽 세시에 찾아오는 영감을 기다리지 마라”였던 것 같다. 당시 나는 낮에는 생각이 안 난다는 이유로 낮에 글 쓰는 것을 꺼리고, 주로 새벽에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었다.

이 부분을 읽고 ‘아차’ 싶었다. 나는 낮에 써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좋은 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도움이 안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 5) 보통의 존재 - 이석원



## 감상평

역시 말투가 거침이 없었다. 사실 이 책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담은 수필”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침없이 솔직하게 하는 것만은 정말 따라하고 싶었다. 말 한 마

디 한 마디에 힘이 실려있는 느낌이었고, 너무나 닳고 싶은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위의 <언제 들어도 좋은 말>도 그렇고, 완벽하다 생각했던 이석원 작가의 책 평점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아마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는 이 점 마저도 마음에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공통점은 그것인 것 같다. 솔직함. 깔끔한 문장. '수필'형식에 이 요소들을 넣는 것으로 나의 글 정체성은 정해진 것 같다.

## 4. 나의 글

### 1)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 (1) 글 설명

중학교 3학년 여름, 3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 두 분이 학교를 떠나가셨다. 그분들의 소중함을 빈자리로써 깨닫게 되고, 많은 후회를 하지만, 안녕은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기에 마냥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후회하고 슬퍼하면서도 이 이별은 선생님들의 새로운 출발이기에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그런 갈팡질팡한 감정을 담기도 한 글이다.

이 글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기를 넘겨보던 중, 발견한 하나의 일기를 수필의 형태로 크게 바꾼 것이다. 아이디어를 받은 일기는 이별을 하던 방학식 당일의 일기였는데, 슬프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문장에서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걸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이나 모습들도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래서 바로 글로 옮겨 적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냈다.

당시 기억을 조금 떠올려보자면 굉장히 슬퍼했었다. 3년 동안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았던 사람과 이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낯선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남들 몰래 눈물을 짙끔 흘렸던 기억이 난다.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갔던 일상을 후회했었다. 당연하게 잔소리를 듣고 밥을 먹고, 고쳐진 문을 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을 후회했다. 다 지나고 난 후에야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글들을 썼던 것 같다.

조금 덧붙여 보자면, 이 글은 나의 첫 번째 글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정과 고민을 거쳤다. 처음 글과는 생판 다른 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글의 주인공 선생님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 글은 나에게 이런 신비함을 알게 해주었던 글이기도 하다.

한 번은 옥소 백일장에 이 글을 내봤는데, 장려상을 탔다. 물론 '학생과 선생님의 이별'이라는 주제가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겠지만, 글이 너무나 창피해 내 글을 보는 것조차 꺼려했던 '장려상'은 이런 나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보여주기 창피한 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정이 가는 글이다.

## 2) 새출발

### (1) 글 설명

이 글은 내가 말하던 '보편적인 수필'과는 제법 거리가 있다. 위에서 말했던 구성이나 순서 등이 들어가지 않은 글이기도 하고, 나의 하소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정말 못 쓴 글이다.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정말 창피하고 당장 지워버리고 싶은 글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당시에 이 글을 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의미 없는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기를 넘겨보면 논문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달아나고 싶은 정도로 정말 힘들어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금새 알 수 있었다. 당시 나의 화두였던 드림 논문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자신을 향한 끝없는 질타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까지도.

하기 싫었다. 나는 너무 못치고, 자신감과 용기를 잃었고, 스스로 무너졌다. 그러던 중 글쓰기라는 것이 내 안중에 들어온 것이다. 희망과 기대에 가득차 새로운 논문을 시작했다. 나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의미있는 논문을 할 수 있었다.

이 글 역시 글 논문 초반에 쓴 글이라 수정할 부분이 무궁무진했다. 글을 쓰면서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서, 이 글을 완성하는데 3달은 족히 걸렸다(그렇다고 내용이 엄청난 것도 아님). 아무래도 '논문을 바꾼 이유'에 대해 할 말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글을 쓰는 과정에서 '싸구려 감성' 같은 과잉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써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다 보니 글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퇴고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쓴지 몇 개월이 지난 원고를 보니 너무나 과한 요소들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문장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부터 수정을 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다. 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게 퇴고를 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가장 많았던 글이 바로 이 글라고 할 수 있다.

그 많은 우여곡절에 비해 내용은 별거 없지만 말이다.

### 3) 말 한마디

#### (1) 글 설명

말 한마디. 나를 변화시킨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말 한마디였다. 그 강렬한 한마디 덕분에 나는 변화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어른'들의 조언이나 연설이 아닌, 학생들의 사소한 대화속의 별 것 아닌 말 한마디라도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친구의 한마디 이후로 나는 보란 듯 바뀌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당연하게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후에 알게 되었다. 내가 편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군가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다.

방학이 되어서도 그 친구의 한마디는 잊을 수가 없었다. 난 아직도 정확히 기억한다. 장소, 눈빛, 말투 등등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한마디였다. 동시에 방학이 한창일 무렵 나의 변화를 체감한 나는 곧장 이 이야기를 글감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글을 쓰며 바뀌기 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많이 했다).

이 글 역시 지금의 형태로 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정을 거쳤다. 퇴고가 가장 힘들었던 글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수정할 것이 많았다. 그 결과 초본보다 배는 괜찮아진 글을 완성시켰다. 초본 글을 다시 보면서 퇴고가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던 글이다.

### 4) 이번만큼은 뼈에 새기리라

#### (1) 글 설명

나의 논문이 최대의 공백기를 맞았던 적이 있었다. 의욕을 잃었고, 틈만 나면 피시방을 가

는 나태한 생활을 했었다. 의미 있는 논문을 하겠다는 초심은 온데간데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일기를 한 번 펼쳐봤었다. 당시는 내 글에 대한 자신감이 최고조로 떨어져 있던 시기였는데, 이런 나에게 자신감을 준 일기 한 편을 발견했다. 그 글을 본 이후로 나는 다시 글을 시작할 수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열정을 떠올리며 논문에 임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일기를 쓴다는 자랑 글이 될 수도 있겠다. “일기를 쓰면 이렇게 돌아보며 힘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자랑 말이다. 덕분에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일기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고 이 글은 말한다.

글을 퇴고하거나 내용을 손댈 곳이 제일 없었던 글이다. 그만큼 문장이 깔끔하고, 내용도 잘 풀어냈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과하게 담백하거나 별 내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글이라서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는 한다.

## 5) 고운말

### (1) 글 설명

입이 무척 더러웠다. 차마 생각하기도 거북한 그런 욕들. 나는 그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 오곤 했었다. 나는 그런 말들이 정말 안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계속 좋아해 주니 멈추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재밌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그게 재밌는 것인 줄 알았나 보다.

시간이 지나고, 차츰 상식이 생기며 나쁜 욕(욕에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겠냐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혐오,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욕)을 끊게 되었다. 혐오가 가득한 더러운 말을 재미로 내뱉던 지난날의 내가 너무 한심해서 이 글을 썼다.

어쩌다 이 글을 쓰게 되었냐면, 그냥 ‘문득 떠올라서’다. 그런 나쁜 말들을 끊은 후, 후배 민혁이가 나에게 했던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지, 방학에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되었다.

글을 쓰면서 과거의 ‘나’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시작은 민혁이의 말이었지만 깊이 생각해보며 ‘재미’만을 좇는 나였음을 알게 되었고, 글에서 말하듯 “누군가를 상처입히는 것이 재밌는 것이라면, 나는 별로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짧은 글이지만 이런 나를 돌아보게 해주어 적어도 ‘나한테는’ 좋은 글이지 않을까 싶다.

## 6) 비로소 ‘나’

## (1) 글 설명

학교에 오기 전 나는 2년 동안 야구부 생활을 했었다. 내가 있던 야구부는 코치는 야구배트로 때리고, 선배들은 모든 잔 심부름을 후배들한테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 폭력과 위계가 난무하는 생활을 하며 나도 그런 분위기에 물들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구’ 한 가지만 보고 살았었다.

결국 힘들어서 그만뒀다. 그리고 간디학교에 들어와서 4년째 사는 중이다. 그동안 몰랐지만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됐고, 야구를 그만두길 잘했다는 것과 자칫하면 이런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

이 글은 일기를 보고 쓴 글은 아니다. 저 글을 쓸 당시에 떠오르는 상념들을 메모장에 조금씩 적고, 글로 풀어 쓴 것이다. 야구부 일은 일기를 쓰기도 전인 초등학교 시절에 있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이 선명한 것이 많다. 그만큼 힘들었던 기억인 것 같다.

남이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책 타이틀 글로 선정한 만큼 나에게서는 중요한 글이다. 어쩌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나 ‘고성일’의 삶을 일컫는 글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정말 힘든 기억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보니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전개 시킬지가 많이 고민되었다.

그러던 중 생각난 것이 바로 장영희 작가의 인트로다.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그 글의 인트로가 마음에 들었는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계절을 얘기하고, 학교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등 서서히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 잘 되어있는 글이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시작해볼까?”하고 무작정 쓰기 시작했다.

“글이 안 써질 때는 앉아서 뭐라도 써라”가 처음으로 통한 글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장영희 작가의 글에서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옛날 풍의 말투, 단어, 시점 전환, 그리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대구 되는 요소까지. 내가 인상 깊게 봤던 글들의 요소가 제법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글은 내가 ‘쓰고 싶었던’ 글에 가까운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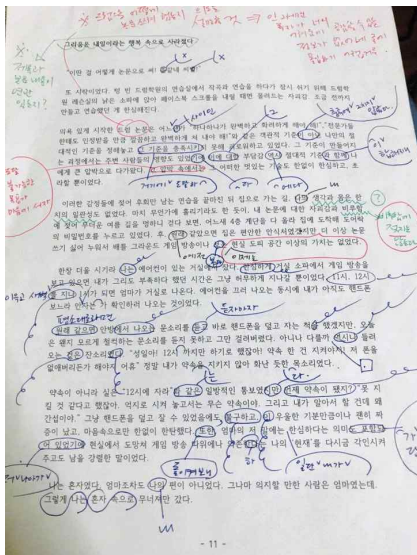
## 7) 1차 퇴고 과정



퇴고는 나에게 정말 좋은 과정이었다. 내 글은 퇴고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 정도로 퇴고를 거친 글은 썩 괜찮은 글이 되고, 글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퇴고가 당시의 생생한 감정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퇴고 과정은 쓸데없는 문장을 없애 줌으로서, 당시의 감정을 오히려 더 부각 시켜준다. 또한 내가 '정말 그랬었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며 그렇지 않은 걸뭇 문장들을 없애준다. 도리어 더욱 솔직하고 좋은 글이 되게끔 해준다는 것이다.

퇴고를 거친 글들은 아예 새로운 글이 된다. 그 정도로 퇴고 과정이 중요했고, 초본에 쓸데없는 요소들이 많았다는 뜻인데, 초반 글들(새출발,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말 한 마디, 고운말 등)은 퇴고할 것들이 정말 많았으나, 논문 후반에 쓴 글일수록 퇴고할 요소들이 적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퇴고하면서 "글 실력이 점점 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1차 적으로 쓴 글을 병곤쌤에게 가져가 피드백을 부탁드렸다. 그래서 병곤쌤은 밑 사진처럼 원고에 체크를 하며 수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 해 주셨고,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본격 수정하였다.



6편의 글에서 수정 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셨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글들을 수정하였다.

병곤쌤이 강조하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로는 띄어쓰기, 맞춤법 등 자잘한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장에서 정확한 기능을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실제로 내 글에는 내가 뜻도 모르고 쓴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들이 제법 많았다.

세 번째로는 비문에 주의하라는 것이다. 내 글에는 긴 호흡의 문장(본질을 잃은 문장)이 너무나 많았고, 읽기 거슬리는 문장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두고 수정하였다.

## (1)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1문단 수정 없음

### 2문단

식사 시간에 늦어 우리를 기다리던 어미 새는 구수한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로 호통을 친다. “이 똥강아지들아!”... 제시간에 와라, 설거지 제대로 해라. 식당 청소 깨끗이 해라. 그냥 잔 소리거니 하고 넘어갔다.

> 굉장히 추상적. 이야기를 담아낸 수필인데, 이 글에 ‘어미 새’ 내용은 이 3줄뿐임. 이야기의 서술이 너무 짧을뿐더러 읽는 이의 공감을 사지 못할 것 같기도 하여 문단 재구성 →

어미 새는 매주 수요일이면 장을 보러 가곤 했다. 장을 막 보고 온 친환경 식자재들이 실린 은색 스타렉스가 학교에 도착할 때쯤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설마 ‘그’ 차는 아니겠지.” 우리는 식자재가 실린 차를 ‘그’ 차라고 했다. 마치 해리포터에서 등장인물들이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듯이. 시간과 꽤 많은 힘을 들여 날라야 하는 식자재 차를 두려움의 대상이라 여겨 장난식으로 부르는 말이었다. 곳곳에서 탄식이 나온다. 딱 ‘그’ 차가 올 타이밍이었기에 모두가 예상했었다. 그렇게 은색 스타렉스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지나 식당 뒷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과 함께 차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그’가 내렸다.

“애들아 짐 좀 날라↗라↘” (구수한 사투리였다.)

“네”

더 암울하게 느껴지는 대답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모두가 식당 뒤편으로 가 짐을 나를 때, 나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짹짹 학교 건물 안으로 도망가 전산실에 들어가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태연하게 네이버 웹툰을 봤다. 그 때의 나는 그러했다. 어미 새는 매주 수요일이면 장을 보러 가곤 했다. 장을 막 보고 온 친환경 식자재들이 실린 은색 스타렉스가 학교에 도착할 때쯤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설마 ‘그’ 차는 아니겠지.” 우리는 식자재가 실린 차를 ‘그’ 차라고 했다. 마치 해리포터에서 등장인물들이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듯이. 시간과 꽤 많은 힘을 들여 날라야 하는 식자재 차를 두려움의 대상이라 여겨 장난식으로 부르는 말이었다. 곳곳에서 탄식이 나온다. 딱 ‘그’ 차가 올 타이밍이었기에 모두가 예상했었다. 그렇게 은색 스타렉스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지나 식당 뒷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과 함께 차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그’가 내렸다.

“애들아 짐 좀 날라↙라↘” (구수한 사투리였다.)

“네”

더 암울하게 느껴지는 대답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모두가 식당 뒤편으로 가 짐을 나를 때, 나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짹짹 학교 건물 안으로 도망가 전산실에 들어가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태연하게 네이버 웹툰을 봤다. 그 때의 나는 그러했다.

### 3문단

아빠 새는 묵묵히 때로는 요란하게 때로는 위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등지를 고치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평소에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평범한 일상인 듯 넘어갔다.

> 위 문단과 마찬가지로, 경수쌤이 가시기 전의 일상들을 회상하며 문단을 재구성했다.

아빠 새는 등지를 고치고, 관리하고, 행사 때면 음향, 조명기기 등을 설치하는 몇 안 되는 귀한 기술자였다. 행사 날이면 제일 힘 쓰시던 분. 기기 나르고 설치하기 바쁘시던 분. 그 재미난 행사들을 제대로 즐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때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던 분이였다. 고장 난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지붕 위를 걸어 다니며 건물을 수리하기도 하고, 별집도 없애 주시기도 하였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던 것도 이 분 덕이었겠지만 이마저도 나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무심코 지나갔다.

### 4문단 수정 없음

### 5문단

우리 공동체가 모두 모여 우리를 떠나 새 출발 하는 한 쌍의 새들을 향한 이별의 노래를, 구슬픈 지저귀음, 나는 따라 하지 못했다. 벅차오르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 봐. 우는 걸 보이는 게 창피해 구석으로 가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슬픔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내 눈가에는 나의 본심이 담겨있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있었다.

> 필요 없는 문장들 가지치기. “구슬픈 지저귀음” 같은 표현은 너무 과몰입해서 썼다는 느낌도 들었다 →

떠나는 날이었다. 우리를 떠나 새 출발 하는 한 쌍의 새들을 향한 이별의 노래를 나는 따라 부르지 못했다. 벅차오르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 봐. 우는 걸 보이는 게 창피해 구석으로 가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내

눈가에는 후회와 슬픔이 담겨있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있었다.

## 6문단

복잡한 생각과는 다르게 이별이라는 것은 훗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 굉장히 추상적인 문장. 우리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수정 →

복잡한 생각과는 다르게 이별이라는 것은 훗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부서진 문짝을 보았을 때, 고장 난 보일러를 보았을 때, 수요일 오후가 되어도 없는 텅 빈 식당 뒷문을 보았을 때, 식판 깨끗이 닦으라고, 식사시간에 늦지 말라고 군소리하는 사람이 없어 한없이 공허함을 느낄 때, 그제야 비로소 그들의 빈 자리가 느껴진다.

## 7문단

이별이 지나가고서야, 일상 속의 소중함을 그들의 빈자리로 인해 깨닫는다. 내가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떠나 가버린 그 자리에는 후회의 슬픔이 아닌 함께한 추억과 애정으로 남아 이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

> 문장을 좀 더 부드럽게 수정. +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

이별이 지나가고서야, 일상 속의 소중함을 그들의 빈자리로 인해 깨닫는다. 내가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그저 평범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떠나 가버린 그 자리에는 후회의 슬픔이 아니라 함께 한 추억과 애정으로 남아 이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

## 8문단

사람과 사람이 헤어진다는 것은, 이별이라는 것은 정이 곱든 밋든 어렵고 힘들기 마련이지만 슬퍼하기에는 이른다. 이별은 민들레 흩날림과 같이 새로운 출발이라고들 하니까.

> 에피소드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유하게 설명. + 문장 가지치기 →

이별하기 일주일 전, 심란해하는 나에게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 해주셨다.

“슬프지만 우리는 새 출발을 응원해 줘야 해”

누구나 심란하기 마련이지만 슬퍼하기에는 이른가 보다. 이별은 훌쩍이와 같은 새 출발이라고 들 하니까.

## 9문단

그렇게 이별 자체에 대한 슬픔도, 후회의 슬픔도 아닌 그 중간에서,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라 생각하며,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담보로 삼은 후에야 빈자리와 흔적이 공존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 ‘담보’ 같은 단어의 경우 문장에서 정확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다 →

그렇게 이별 자체에 대한 슬픔도, 후회의 슬픔도 아닌 그 중간에서,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라 생각하며,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마음속에 되새긴 후에야 빈자리와 흔적이 공존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 마지막 <작가 메모>를 추가했다.

## (2) 새출발

1문단 수정 없음

## 2문단

의욕 있게 시작한 드림 논문은 어느샌가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화려하게 해야 해!”, “전문가들한테도 인정받을 만큼 깔끔하고 완벽하게 쳐 내야 해!”와 같은 객관적 기준이 아닌 나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부담감 역시 절대적 기준과 함께 나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 압박 속에서는 그 어떠한 멋있는 기술도 한없이 한심하고, 초라할 뿐이었다.

> 지나치게 긴 문장들이 다수 있음. 더군다나 문단도 긴 편이기에 최대한 문장을 짧게 짧게 줄였고, 당시를 생각해보면서 문단을 일부분 재구성하였다 + 퇴고 전의 글이 당시 나의 감정

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 짤막한 문단을 2개 추가했다 →

논문 쓰기 싫다는 생각은 당시 내 인생 최대의 화두였다. 의욕 있게 시작한 나의 “드럼 솔로 창작” 논문은 어느새 ‘불가능한’ 논문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드럼연주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극심히 꺼렸던 나는 전문가들한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다. 그러니 될 리가 없었다. 나는 중학교 3학년임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이 아닌 나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토록 내가 들려주기 꺼려했던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가 컸다. 나에게 해주는 응원의 한마디들이 부담이었고, 앞서 말한 절대적 기준과 함께 나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더군다나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속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때문에 나에게 “너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 “더 잘하려고 하지 마” 같은 말을 해줄 사람이 내 곁에는 없었다. 그렇게 나는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를 파듯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말도 안 되는 기준에 얽매어 살고 있었다.

#### 4문단

이러한 감정들에 젖어 후회만 남는 연습을 끝마친 뒤 집으로 가는 길, 나의 생각과 몸은 한치의 일관성도 없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내 논문에 대한 자괴감과 비루함에 젖어 무더운 여름 길을 멍하니 걷다 보면, 어느새 4층 계단을 다 올라 집에 도착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후. 원래 같았으면 집은 편안한 안식처였겠지만 더 이상 논문 쓰기 싫어 누워서 배틀 그라운드 게임 방송이나 보는 현실 도피 공간 이상의 가치는 없었다.

>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말이 많고, 문단이 긴 것에 비해서 문장이 너무나 길어 읽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문장을 최대한 나눴다. 그리고 “생각과 몸이 한치의 일관성도 없었다”는 말과 같이 해괴한 표현들을 잘라내고, 조금 더 당시 상황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했다 →

굳이나 표현을 하자면 “생동감 없는 일상의 반복” 이었다. 연습을 끝마친 뒤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집에 갔다. 내 논문에 대한 괴리감과 비루함에 물들어 멍하니 걷다 보면, 어느새 4층 계단을 다 올라 집에 도착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사람과 대화 한마디도 나지 않고 보낸 일과의 끝이다. 그제야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성일이 왔니?”

#### 5문단

한창 더울 시기라 나는 에어컨이 있는 거실에서 잤다. 한심하게 거실 소파에서 게임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리도 부족하다 했던 시간은 그냥 허무하게 지나갈 뿐이었다. 11시, 12시를 지나 1시가 되면 엄마가 거실로 나온다. 에어컨을 끄러 나오는 동시에 내가 아직도 핸드폰

보느라 안자는 가 확인하러 나오는 것이었다.

> “11시, 12시를 지나”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했다.

## 6문단

원래 같으면 안방에서 나오는 문소리를 듣고 바로 핸드폰을 덮고 자는 척을 했겠지만, 오늘은 웬지 모르게 철컹하는 문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만 걸려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들려오는 것은 잔소리였다. “성일아! 12시 까지만 하기로 했잖아! 약속 한 건 지켜야지! 저 폰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어휴” 정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난 듯한 목소리였다.

> 여러 가지 자잘한 요소들을 읽기 쉽게 수정하였다.

평소대로라면 안방 문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덮고 자는 척 했겠지만, 오늘은 웬지 모르게 철컹하는 문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만 걸려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들려오는 것은 잔소리. “성일아! 12시 까지만 하기로 했잖아! 약속 한 건 지켜야지! 저 폰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어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난 듯한 목소리였다.

## 7문단

약속이 아니라 실은 “12시에 자라”와 같은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언제 약속이 됐지? “못 지킬 것 같다고 했잖아. 억지로 시켜 놓고서는 무슨 약속이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간섭이야.” 그냥 핸드폰을 덮고 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한 기분만큼이나 괜히 짜증이 났고, 마음속으로만 한없이 한탄했다. 또한, 엄마의 저 말에는 한심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현실에서 도망쳐 게임 방송 따위에나 의존한다는 나의 ‘현재’를 다시금 각인시켜주고도 남을 강렬한 말이었다.

> 조금 더 몰입될 수 있게끔 말하는 부분을 문단 앞에 배치하였다. + 불필요한 문장들을 가지치기하고, 정확한 기능을 하는 문장들로 대체했다 →

“못 지킬 것 같다고 했잖아. 억지로 시켜 놓고서는 무슨 약속이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간섭이야.” 그냥 휴대전화를 덮고 잘 수 있었음에도, 우울한 기분만큼이나 괜히 짜증이 났고, 마음속으로만 한없이 한탄했다.

엄마의 저 말에는 한심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더 나아가 현실에서 도망쳐 게임 방송 따위에나 의존한다는 나의 ‘현재’를 다시금 각인시켜주고도 남을 강렬한 말이었다.

## 8문단

나는 혼자였다. 엄마조차도 나의 편이 아니었다. 그나마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엄마였는데.

그렇게 나는 혼자 속으로 무너져만 갔다.

괴롭다. 방향성을 잃고 불가능한 기준을 향해 달려가는 내 논문과 이런 감정과 상태를 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혼자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막막함을 가지고 논문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도망쳐 버리고 싶었다. 이 감정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나의 슬픔을 울음에라도 의지하려고 울었다.

> 필요 없는 요소인 ‘과’를 뺐고, “못한 채 방치되었던” → “못한 채 스스로 방치되었던”으로 수정.

## 9문단

행복해지고 싶었다. 1)별 게 아니다. 외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를 가지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맘껏 하는 것. 그냥 살다가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2)하던 일을 멈추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싶었다. 3)아니 그런 여유가 그리웠다. 하나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찌나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기는4)지 5)이렇게나 지나간 6)일상들이 그리웠던 적이 있었던가.

- > 1)- 필요 없는 말이라 문장에서 열외.
- > 2)- 쓸데없이 김. “그것을 하기 위해”로 대체.
- > 3)- 1)과 내용 같음.
- > 4)- 문장이 길어지므로 ‘지’뒤에 마침표를 찍어 문장 끝맺음.
- > 5)- “이렇게나”가 앞에 나오면 문장이 어색해지므로 원 문장에서 열외하고 “일상들이 그리웠던” 사이에 끼워 넣음 → 지나간 일상들이 이렇게나 그리웠던 적이 있었던가.

## 10문단 수정 없음

## 11문단

“도망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과 함께 행복했던 지난 방학, 가정학습이 생각났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근심이나 걱정거리 없이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건 드럼이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곡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는데, 이것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선생님의 칭찬. 그것은 나의 원동력이 되어 미치도록 연습했다.

> 최대한 문장을 짧게 줄이거나 나눴다. 쓸데없는 문장도 가지치기했고, 보다 정확한 표현들로 문단을 일부 수정했다.

“도망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과 함께 행복했던 지난 방학, 가정학습이 생각났다. 논문 시작 전 겨울방학에는 근심이나 걱정거리 없이 하고 싶은 걸 했다. 겨울방학이 시작



되자마자 첫 번째로 배운 것이 드림이었다.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선생님의 칭찬, 그것은 나의 활력소가 됐고, 그만큼 열중하며 연습했다.

## 12문단

피아노도 배웠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치고 싶던 곡이 있었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연습해서 결국 완성을 했다. 원래 내 수준보다 높은 난이도의 곡이어서 어려웠지만, 그 정도의 성취감은 정말 오랜만이였다. 또 하고 싶은 1)게 생길 때면 그게 무엇이든 다 내려두고 무조건 했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었기에. 이렇게 난 심적으로도 평온하고 여유로웠다. 행복한 일상이었다.

> 1)은 '게' → '다른 무언가'로 수정. 나머지는 필요 없는 요소라 판단하여 문장에서 제외.

## 13문단

울면서 왜 자꾸 이 생각이 났을까. 그저 그리웠을 뿐이었다. 지금과는 정반대인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이. 학교, 논문으로부터 도망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으리라 몇 번이고 머릿속에 되새기며 베개에 10분이 넘도록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다 잠에 들었다.

> 부드러운 맥락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 생각이 났을까” → “지나간 겨울방학을 생각했다”로 수정. “10분이 넘도록”이라는 표현은 당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 꾸며낸 장치. 실제 쓴 시간은 알 수 없을뿐더러 문장이 부자연스러워 “10분이 넘도록”이라는 표현은 문장에서 제외했다.

울면서 자꾸 지나간 겨울방학을 생각했다. 그저 그리웠을 뿐이었다. 지금과는 정반대인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이. 학교, 논문으로부터 도망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으리라 몇 번이고 머릿속에 되새기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다 잠들었다.

## 14문단 수정 없음

## 15문단

어찌 됐든 시간은 흘렀다. 나의 상태가 어떻든 논문의 진행도가 어떻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 시간은 단지 상처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렇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상태로 개학을 맞이했다.

> 읽기 쉽게 수정(더 정확한 표현들 추가).

어찌 됐든 시간은 흘렀다. 내 심리 상태, 논문의 진행도와 상관없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시간은 상처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렇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상태로 개학을 맞이했다.

## 일기 인용 부분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논문 쓰기에도 벅찬 시간을 개인 프로젝트에 써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 성격상 하고픈 것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애라 모르겠다 씨X. 일단 지르고 본다. 내가 그렇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대책도 없이 실행하고 보는 그런 놈.  
(2018.9.11 일기 中)

“너의 여유로운 일상을 되찾고 싶었던 것 아닐까. 행복하고 싶어 했잖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거잖아”

“닥쳐. 그럴 여유 따위 없어. 아마도.”

> 빨간색 부분은 하지도 않은 생각인데 괜히 걸뭇 들어서 쓴 문장이므로 창피해서 글에서 제외.

## 16문단

중학교 2학년 1)초부터 줄곧 일기를 써 왔다. 제대로 글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한 건 3학년 무빙 2)때였는데, 소설 비스무리 한 것을 쓰는 것도 3)처음이었고, 누군가를 보여준 것도 처음이었다. 글을(일기) 4)조금씩 써와서 그런지 제법 괜찮다는 말도 듣긴 했지만, 다른 잘 쓴 친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부러웠다.

> 1) 초→때 /2) “때였는데”→“무렵이었다.”/3) 필요 없는 말이라 제외./4) 조금씩→꾸준히  
> 이런 식으로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고, 필요 없는 말을 제외시켰다.

## 17문단

“글 저렇게 쓰고 싶다.”

나도 배워보고 싶더라. 단지 그게 시작의 이유였다. 멋있어서. 그렇게 글을 배워 나갔다. 4주 정도 배웠을 때쯤, 글은 ‘내가 할 줄 아는 것’ 중 하나가 되었다. (강조컨대 ‘잘하는 것’이 아니다.)4주 동안 글을 배우면서 어찌면 이게 나를 이 불행에서 꺼내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써본다고 끄적여 본 글이 당시엔 마음에 들었기에. 잘 쓴 글은 아니지만, 그 푸르스름한 새벽 4시의 뿌듯함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기에.

>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 문장에는 일기에 썼던 내용도 한 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난해한 문단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두 가지를 앞, 뒤로 넣고 일기는 일기대로 가운데에 넣었다 →

“글 저렇게 쓰고 싶다.”

나도 배워보고 싶더라. 이것저것 일단 하고 보는 나에게는 그것이 단지 시작의 이유였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글을 배워 나갔다. 4주 정도 배웠을 즈음 글은 ‘내가 할 줄 아는 것’ 중 하나가 되었다. (강조컨대 ‘잘하는 것’이 아니다.)

*글을 쓰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성찰할 수 있었고, 재밌었다. 4주 동안 글을 배우면서 “논문을 이걸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다.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나에게 의미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9/20 일기 中

그다음 주, 그러니까 글을 쓰기 시작한 지 꼭 5주째 되는 날, 나는 논문 주제를 바꿨다.

## <필자 메모>

언젠가 책에서 ‘비루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았다. “슬픔으로 인해 자신에게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어떤 단어를 보고 동질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이처럼 지금 나에게 걸맞은 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감정이었다면, 지금은 그저 이것의 정체를 규범 할 수 있는 것뿐. 그뿐이다. 지금 이 상황에 그만 감정의 이름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지낼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무서웠던 것은, 내가 이 감정에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겉으로만.

그 속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도 깊숙한 곳에 묻어둔 금기의 비밀인 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같잖은 농담이나 지껄이는 생각 없는 드럼쟁이로 주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고 싶었다는 것.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속으로는 두려웠던 것이다. 아무 발악도 못 해보고 혼자서 무너지는 것이.

> 이석원 작가 따라하려다 쫓딱 망한 부분이다.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가? 나는 모르겠다. 3~4시간의 고심 끝에 이 필자 메모를 쓴 과거의 나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글은 너무 별로다. 솔직하지도 않고, 걸뭇만 들어서도 알지도 못할 말을 씨부렁대고 있다. 그래서 통째로 수정했다(작품에서 확인).

### (3) 말 한 마디

#### 1문단

일전에 페이스북 스크롤을 내려보다 웃기는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 마디”

> 문장 재구성(간결하고 명확하게) 및 큰 따옴표 문장 앞 <인생 명언> 단어 추가→

페이스북 스크롤을 내리던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인생 명언>,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 마디”

#### 2문단

게시물에는 소위 말하는 ‘명언’을 볼 수 있었다. 빌 게이츠, 에디슨, 스티브 잡스 등.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같은 형식적인 ‘명언’들은 나에게 추호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초등학생 때부터 질리도록 봐 왔던 명언일뿐더러, 실패를 겪어 본 적도 없는 나에게 이런 형식적인 한마디 따위가 도움이 될 리 없지 않은가.

> 앞 문단과의 연결은 부드럽게, 문장은 간결하며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 되도록 재구성  
→

<인생 명언>의 글 모음의 첫 장은 그렇게 시작했다. 넘겨보니, 소위 ‘명언’을 볼 수 있었다. 빌 게이츠, 에디슨, 스티브 잡스 등이 말했던 그런 뻔한 명언들 말이다. 기껏 명언들을 짜깁기한 게시자에겐 미안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같은 닳고 닳은 명언들은 내겐 눈곱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패를 겪어 본 적도 없는 나에게 이런 형식적인 한 마디 따위가 도움이 될 리 없지 않은가.

#### 3문단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말 한 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아무리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내가 바로 그 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사람은 한 마디로도 변화 할 수 있다”라는 문단의 본질은 부각되게 하고, 문장은 간결하게

## 재구성 →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말 한 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한 마디들에 과민반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디로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4문단

“아 진짜! 너 혼자 좀 해!”

명언이라 하기에는 웅색한 부분이 다소 있지만, 당시 나에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른다.

이 친구와는 제법 친한 사이인데, 회의나 토론 에서만 보던 이 친구의 진중하고 날카로운 모습이 나에게 향해질 줄은 몰랐다. 나를 향한 경멸의 시선은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

> **침표를 사용한 두 번째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는 등 전체적으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고, 하고자 하는 말이 와닿을 수 있도록 재구성 →**

“아 진짜! 너 혼자 좀 해!”

명언이라 하기엔 다소 웅색하지만, 당시 나에게 얼마나 이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른다.

이 친구와는 제법 친한 사이였다. 이 친구는 회의나 토론 때 진중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그 태도가 나에게 향해질 줄은 몰랐다. ‘친한 친구’의 그러한 시선은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경멸의 눈빛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

## 5문단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추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내가 맡은 역할은 우리 학번의 논문집 교정을 하는 것인데, 온전히 나의 역할임에도 같이 하자고(같이 하면 내 일이 줄어 드니까) 소리를 꺽꺽질러댄 것이다.

>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며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바꾸고, 문장은 간결하게 재구성 →**

그 친구는 나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온전히 나의 역할이었던 학년 논문집 교정을 해달라고 소리를 꺽꺽 질러댔으니 오죽했을까.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 6문단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귀찮은 걸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나의 오래된 타성이다.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면서도 나의 그릇됨을 자각하지 못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성장했니 어찌니 하면서도 시은 나의 안일함 만을 추구하는 어린애였다. 난 이것을 그 친구가 말 한 후에야 알게 된 것이다.

> 문단의 본질을 부각되게 하고, 문장은 간결하게 재구성 →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귀찮은 걸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나의 오랜 타성이다. 이런 비합리적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나의 그릇 됨을 자각하지 못했다. 나는 학교 다니면서 성장했니 어찌니 했지만,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어린아이였다. 이런 안일한 태도를 이제야. 그 친구가 던진 따끔한 말 한마디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 7문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반증으로는 우선 학생회의 서기를 맡은 것이 있겠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학 동안 꾸준히 타자 연습을 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회의를 하며 방학 때 3일 동안 모여 회의만 구장창 해야 하는 보직은 무위도식을 일삼았던 나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더 학생회를 하려고 했다.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말이다.

> 읽는 사람이 학교사람만이 아닌 것을 고려하고, 퇴고 전 글처럼 너무 주절대는 느낌이 나지 않게 더욱 임팩트있고 간결한 문장으로 재구성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후 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내가 할게”

최근 들어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요즘 집안일이건 학교 일이건 내가 스스로 나서고 이바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무위도식을 일삼았던 나에게겐 더없이 큰 발전이라 말할 수 있다.

## 8문단

집에서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학급이나 동아리에서는 중대한 역할을 스스로 도맡아 하기도 했다.

당연한 것들, 일을 마치면 말 그대로 기분이 끝내준다. 한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다 하고, 쓰레기를 모조리 갖다버렸다. 꼭 1시간 20분이 걸렸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들. 너무 고마워. 덕분에 요즘 엄마가 너무 편하다!”

> 주절대는 느낌도 나고, 이 문단을 통해 독자에게 형상화될 이미지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라

## 문단 재구성 →

설거지든 청소든, 문서 정리 등 해야 할 일들을 끝내면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아마 해야 할 일을 유순히 마무리했다는 뿌듯함, 그리고 그 많은 양의 일들을 다 했다는 성취감의 응집체일 것이다.

## 9문단

성취감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막상 해보면 별것이 아닌데도 나는 어떤 일이건 항상 남 뒤에 숨어 회피하고 모면하기 바빴다.

>“이루 말할 것도 없다”라는 촌스러운 표현이 마음에 안 들고, 문단의 임팩트가 약해 일기를 인용하여 문단 재구성 →

*설거지, 청소 - 다 내가 먹고 싸지른 것 아닌가. 막상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내 일임에도 나는 항상 남 뒤에 숨어 회피하고 모면하기 바빴던 것 같다.*  
1/7 일기 中

## 10문단

분량이 줄어들어 허전한 느낌이 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전달되지 못한 느낌을 받아서 한 문단을 추가하였다 →

지난주 학급에서 학교 밖 소풍 준비를 하는데 한 후배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소풍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었기에 내가 그 여백을 메웠다. 후배 뒤치다꺼리를 해서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나의 ‘편함’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노고가 있었음을 느꼈고, 이 사실을 간과하며 안일하게 살았음을 후회했다.

## 11문단, 12문단

그 친구에게는 사소했을지도 모를 말 한마디 덕에 점점 나 자신이 변해 가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나의 편리함을 버리고 몸소 일하더라도 그 뒤에 숨은 가치들을 발견했으니 “평 대신 닭”을 잡은 셈이니 이것으로 만족한다.

참, 아직까지도 말 한마디가 우습냐고 물으면 당연지사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말 한마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 명언은(해봤자 몇 년 되겠냐 만은) 빌 게이츠, 에디슨, 스티브 잡스 그 누구의 말도 아닌 친구가 말한 “너 혼자 좀 해!”이다.

> 불필요한 문장들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가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두 문단을 섞

어 버리고 새로운 문단을 또 하나 추가했다(+ 문장 다듬기) →

그건 그렇고, 아직까지도 말 한 마디가 우습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말 한 마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 명언>은, 빌 게이츠, 에디슨, 스티브 잡스, 그 누구의 말도 아닌, 친구가 말한 “너 혼자좀 해!”이다.

여기까지 보고 “성일이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를 느낀다면, 이 시원찮은 글도 받은 성공한 셈이다. 그 친구에게는 사소했음지도 모를 말 한마디 덕에 점점 나 자신이 변해 가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 <필자 메모>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말투에 따라서 그 언어의 본질이나 의미가 달라진다. 장례식장에서 하는 “괜찮니?”와, 침 흘리며 헤벌레 웃는 미친것만 같은 친구에게 비꼬듯 “괜찮니?” 하는 것이 확연히 다른 것처럼.

물론 적당한 상황과 타이밍에 멋지게 한마디 말을 해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매 순간 변화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그 흔하지조차 않은 상황에서 나에게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준 작은 말 한마디들에 감사한다. 용기 내어 한마디 말을 해준 사람은 물론, 심지어 좋지 못했던 상황까지도.

> 이 글을 다시 보고 열불이 났다. 아무리 원테이크로 썼지만 글을 이따구로 써놓다니. 열굴이 붉어졌다. 어쨌든 촌스러운 문장들, 맥락상 필요 없는 문장들을 전부 가지치기하여 깔끔하게 만들었다(작품 확인).

## (4) 고운말

### 1문단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애정표현으로, 때로는 장난의 의도를 가지고 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근덕대고 주접을 떨어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천성적인 성격 중 하나라 볼 수 있는데, 그만큼이나 사람들에게 관심 아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나 고성일이다.

>첫 문장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상해서 간결하게 바꿈 →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 2문단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욕석을 가릴 것도 없이 전에 그냥 행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자 암묵적 약속인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말은 이미 곱씹어 넘겨버린 지 오래이고, 후배고 자시고 무작정 뱉어내기 일쑤였다. 지금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서슴지 않고 뱉고 다니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함이라는 나 자신만의 명목이었다.

> **거추장스러운 문장을 가지치기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문장 재구성 →**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울고 그림을 따지기도 전에 욕설을 막 뱉어냈고, 후배고 친구고 무작정 욕하기 일쑤였다. 지금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서슴지 않고 뱉고 다니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함이라는 명목이었다.

## 3문단

이 글에 내가 했던 욕이나 언사들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강도 높은 욕설을 한 번에 내 몰아쳐 사용했으며, 친한 사람한테는 그런 강도 높은 욕설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뱉어내곤 했다. 그리고 그 주된 대상이 나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후배와 친구였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나 자신에게 치욕스럽고 수치심이 든다.

> **주절대는 느낌. + 문장들이 정확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문단 재구성 →**

“야 이 X신! X놈아!”

욕을 포함해 각종 비하 발언,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당시 나로서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것이었다. 친한 사람은 물론 친해지고 싶은 선배나 후배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이런 언행을 서슴없이 해댔고, 이런 나의 거친 언행은 사람을 대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으로 자리잡혀 갔다. 무엇보다 이런 자극적이고 거친 말들을 주변 사람들은 더 재밌어했기 때문에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나는 이런 언행을 일삼았다.

## 4문단

자신만의 언어에는 자신만의 주관에 따른 욕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최소한 자신이 하는 말의 본질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야 말을 뱉으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나의 난제이긴 하지만, 결코 말을 생각나는 대로 뱉는 것과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혼란을 겪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 **겉멋에 찌든 문장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다.**

때문에 뒤에 나올 문단을 여기에 쓰고 전체적인 그림을 재구성했다. →

일전에 상현 쌤이 해주신 말씀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사람을 웃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자기를 희생하며 하는 개그, 그리고 사물을 이용해서 하는 개그, 그리고 남을 놀림의 대상으로 하는 개그 등. 그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건 남을 놀림거리 삼아 하는 개그야. 물론 이게 재미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개그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알다시피…….”

## 5문단, 6문단, 7문단, 8문단

욕을 포함해 각종 비하 발언,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당시 나로서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것이었다. 친한 사람은 물론 친해지고 싶은 선배나 후배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이런 언행을 서슴 없이 해댔고, 이런 나의 거친 언행은 사람을 대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으로 자리잡혀 갔다. 무엇보다 아무도 나의 언행을 지적하지 않을뿐더러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웃음 포인트가 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일전에 상현 쌤이 해주신 말씀이 희미하게나마 떠오른다.

“사람을 웃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자기를 희생하며 하는 개그, 그리고 사물을 이용해서 하는 개그, 그리고 남을 놀림의 대상으로 하는 개그 등. 그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건 남을 놀림거리 삼아 하는 개그야. 물론 이게 재미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개그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알다시피…….”

새삼 생각해보면 항상 나의 놀림이나 모욕적 언사의 대상은 남이었으며, 다 나의 재미를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무심코 웃어주니 나는 내가 한 말의 옳고 그름조차 판단하지 못해 모욕적 언사를 던져댔고, 그 사람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이 나의 재미만을 만끽하였다.

이런 나의 언행에 갈피를 잡고 개선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제법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건 이젠 그러한 언사들을 삼가는 것이 꽤나 익숙해진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전과는 달리 말로 상처를 주지 말자는 나름의 상념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서 말했던 실언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전체적인 맥락이 마음에 들지 않아 총 4문단을 재구성하였다.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다. 때문에 내가 하려는 말이 많이 가려지는 느낌을 받아서 많은 시간을 들여 총 4문단을 재구성하였다(4문단에서 3문단으로 줄임) →

새삼 생각해보면 항상 나의 모욕적 언사의 대상은 남이었으며, 모두 다 나의 재미를 위함이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웃어주니 나는 내가 한 말의 본질이나 의미는 뒤로한 채 모욕적 언사를 던져댔었다.

차츰 내가 써왔던 저급한 욕들의 의미들을 알게 되며, 이젠 그러한 언사들을 삼가는 것이

꽤나 익숙해진 상태이다. 사회와 긴밀하게 맞닿아있는 학교에 3년쯤 살다 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혐오가 가득 담긴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나름의 신념이 상기 됐나보다. 때문에 앞서 말한 실언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 뭐, 결론적으로 나는 더이상 '재밌는 사람'이 아니다. 특정 누군가를 혐오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유희거리로 삼는 것이 '재밌는 것'이라면, 나는 별로 재밌는 사람이 되고싶지 않다.

## 9문단

점심시간이었다. 나의 언질의 대상이기도 했던 민혁이가 나한테 선뜻 말했다.

“형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더러운 말 안 쓰네. 원래 항상 썼었잖아”

“나쁜 말이니까 안 쓰지.”

“그러니까 훨씬 낫다. 형.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막 던진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울음이 인정받는 순간이며, 내가 실천한 이 행동에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었다. 난 이것으로 됐다.

> 9문단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일부 수정했다. 언질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정확한 기능을 하는 단어가 아니었고, 마지막 문장은 거추장스러운 게 많다고 느껴 문장 재구성했다.

언질→거친 욕설 마지막 문장 → 난 이거면 됐다.

### <필자 메모>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나갔지만 어떻게 그런 언사들에 상처 한번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 미운 말을 서슴없이 해놓고 박장대소를 하는 저의 얼굴을 한 대 쥐어박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조금이라도 제 모욕적인 언사에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 빨간색 부분이 쓸데없다고 느껴 이 부분만 잘라냄

## (5) 이번만큼은 뼈에 새기리라

※ 이 글은 문장을 재구성한 것보다 '에', '의', '것은' 등의 짧은 문구들을 뺀 것이 많아, 재구성한 2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색으로 각주처리를 했습니다.

일기를 제법 오랜 시간 쓰다 보면 간혹 한 번씩은 앞쪽으로 종이를 넘겨 지난 일기를 보는 3)것은 나름4)의 취미가 된다. 화가 나면 무작정 욕을 쓰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면 우와아아

---

3) '것은' > '일이'로 수정

아아- 같은 문장들을 일일이 손으로 쓸 정도로 나<sup>5)</sup>의 일기는 굉장히 솔직하고도 서정적이다. 때문에 그런 6)나의 일기들을 다시 보고 있다면 새삼 미소를 머금게 된다. 그래서 지나간 일기들을 펼쳐보는 것은 7)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일기 왜 쓰는 거야?”- 내가 일기 쓰는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나의 험거워진 일기장<sup>8)</sup>의 첫 장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시작했다고 ‘기록’ 돼 있었다. 마냥 놀기만 했던 1학년 때는 하루하루가 물 흐르듯 쉽사리 지나가는 것이 일기를 쓰게 할 정도로 아쉬웠나 보다.

그래서 습관이 들었는지 요즘도 일기를 쓸 때 ‘오늘 뭐 했나?’를 먼저 쓴다. 그 다음엔 지금 나의상태나 생각을 쓰곤 하는데, 9)그래서 이런 나의 일기방식은 자연스레 10)나의 정서나 심리를 담게 한다.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나에게는 일기가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의 지난 일기들은 좋은 글감이 되기도 한다. 내 일기의 특성상 어떤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기록할뿐더러 생각이나 솔직한 감정까지도 적어놓기 때문에 내가 쓰려는 ‘수필’의 글감으로는 제격인 셈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글감도 없고 글이 생각처럼 잘 써지지 않을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일기를 돌아보는 것이 나름의 메뉴얼 중 하나다.

방학 동안 학교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필수적으로 ”작품 얼마나 썼어? 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많이 썼다느니, 잘하고 있다느니 11)나름의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작품 3개 썼어’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 둘러댄 핑계이다.

사뭇 생각해보면 논문(수필 작품 논문)을 시작하고 요즘처럼 긴 공백을 뒀던 적은 없다. 늦게 시작한 만큼 빠르게 마무리 짓겠노라고 다짐했던 12)나의 초심은 온데간데없이 방학의 일상에 흠뻑 젖어 이렇게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백이라는 기간은 나의 글에 대한 자존감이 최고조로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가뜰이나 난 나의 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더군다나 공백기라는 건 부정적인 내가 그 공백만큼 나의 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기이니 자존감이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서론이 길었다. 2월이 되고서야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한 나는 13)나의 ‘메뉴얼’ 대로 일기

4) ‘의’는 문장에서 필요 없는 말이라 제외.

5) 2)와 내용 같음.

6) 2)와 내용 같음.

7) 2)와 내용 같음.

8) 2)와 내용 같음.

9) 2)와 내용 같음.

10) 2)와 내용 같음.

11) 2)와 내용 같음.

12) ‘나의’는 문장에서 필요 없는 말이라 제외.

를 펼쳐보았다.

최근 5~6개월간의 일기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던 터라 굉장히 신선한 내용의 **것들이**<sup>14)</sup>가 득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일기의 묘한 매력에 빠져 일기를 계속 넘기던 중에 11월 초. 그러니까 새 논문을 시작한 지 거의 2달 정도 되는 시기에 쓴 일기를 본 나는 적이 놀랐다.

*“나 자신에게 내 논문이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난 글을 쓰지 않을 때면 아무도 내 논문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글도 역겨울 정도로 못 쓴다고 생각하곤 한다.*

*한마디로 다 개소리야. 너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sup>15)</sup>너가 쓰려는 내용 들은 너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내용 들이야. 열심히, 그리고 솔직하게 쓰다 보면 사람들에게 조금은 <sup>16)</sup>와 닿을 수 있는 글이 될 거야. 아무도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아.*

*나중이라도 나쁜 생각이 또 들면 이거 보고 마음을 추스르면 좋을 것 같다.”*

11/9 일기 中

‘아 맞아, 내가 이런 일기를 써 났었구나!’ 이제야 기억이 난다. 조금은 오글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 이 글이 좋다. 그리고 이 생각은 논문이 끝날 때까지 추후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불꽃과 같던 열정이 지금의 나에게 전이되는 것<sup>17)</sup>만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다.

#### 문단 재구성 - 12문단

이 일기를 보니 논문 평가지를 품에 안고 가정학습을 갈 때의 날아갈 듯한 황홀함이 생각난다. 모두가 최종 발표를 할 때 새 논문의 중간발표를 한 나는 논문 평가지에 평가가 아닌 많은 내 글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말들이 한가득이었다. 비록 완성이 멀고 먼 산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나였지만, 멋지게 해내고 말겠다며 속으로 다짐했었고, 그날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도 황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었다.

**> 간디 학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겐 이해가 안 될 문장. 또한 잘 읽히지 않을 만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문장 재구성**

이 일기를 보니 논문 평가지를 품에 안고 가정학습을 갈 때의 날아갈 듯한 황홀함이 생각난다.

2018년이 막바지를 달릴 때. 모두가 최종 발표를 할 때 나는 새 논문의 중간발표를 했다. 때에 맞춰 완성하지 못한 나의 논문 평가지에는 평가 대신 내 글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말들이 한가득이었다. 비록 완성이 멀고 먼 산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나였지만, 멋지게 해내고 말겠다며 속으로 다짐했었고, 그날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도 황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었다.

---

13) 10)과 내용 같음.

14) ‘것들이’> ‘일기들이’로 수정.

15) ‘너’> ‘네’

16) ‘와’> ‘가’

17) 10)과 같은 내용.

마지막 13, 14문단 퇴고 없음

## (6) 비로소 '나'

### 비로소 '나'

#### 1문단

겨울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와보니 날씨가 풀려있어 금방 봄이 올 것이라 믿었<sup>1)</sup>건만 아서라 입춘이 보름이나 지났건만, 아침에 기숙사를 나서기만 해도 <sup>2)</sup>차디찬 겨울의 바람이 아직까지 일고 있<sup>3)</sup>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3월이 되도록 봄이라는 계절은 이 시골에 안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 1) 건 → 지

> 2) 차디찬 겨울의 바람 → 겨울의 찬바람

> 3) 문장에서 제외

#### 2문단

수정 문장만 인용

12월이 되고, 새하얀 눈이 살포시 내려앉을 때면 “겨울이다!” 하며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 하다가도 겨울의 살아 숨 쉬는 생동감은 사라지고 초라한 추위만이 남게 되는 2월이 되면, 그제야 봄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 빨간색 부분 문장에서 열외

#### 3문단

수정 문장만 인용

매년 이 시기가 올 때면 한창 야구부를 할 시절의 동계 훈련이 생각난다.

> 매년 이맘때면 한창 야구를 할 초등시절의 동계 훈련이 생각난다.

#### 4문단 수정 없음

#### 5문단 수정 없음

## 6문단

수정 문장만 인용

2년씩이나 매일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어느샌가 눈치를 보는 것은 나의 습습이 되어 버렸다.

> 나도 모르는 뜻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라 쉬운 말로 바꿨다. 당시엔 어려운 말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

→ 2년씩이나 매일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어느샌가 눈치를 보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되어 버렸다.

## 7문단 수정 없음

## 8문단 수정 없음

## 9문단

수정 문장만 인용

1)내가 주먹으로 처음으로 후배를 때린 그 날, 그 후배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훈련에 임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에게 '초등학생다운' 말대꾸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 후배의 눈물을 본 그날, 2)나를 끝 없이 질타하며 뼈저리게 후회했다.

> 1) "주먹으로 처음으로"라는 도입부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다. 그리고 '그 후배'라는 것도 뉘앙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후배'라는 말로 바꿨다.

> 2) "끝없이 질타하며 뼈저리게 후회했다" 앞에 '나'가 들어가서 문장이 많이 어색하다. 이것 역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와는 거리가 멀어 문장을 수정했다

→

내가 처음 주먹으로 후배를 때린 그 날, 민재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훈련에 임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에게 '초등학생다운' 말대꾸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 후배의 눈물을 본 그날, 나는 자신을 향한 끝없는 질타를 날리며 뼈저리게 후회했다.

## 10문단 수정 없음

## 11문단 수정 없음

## 12문단

수정 문장만 인용

누군가 나의 20년도 채 되지 않은 인생의 업보를 묻는다면 '나를 알게 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야구부를 나와서 특별한 교육 방식의 대안 학교에 들어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 '말 할 수 있다' → '말하겠다'- 조금 더 자신 있는 어투로 수정.

> '대안'-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단어라 문장에서 제외

14문단 수정 없음

15문단 수정 없음

16문단

3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디찬 바람이 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바람이 봄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살바람이라는 것이다. 정말 봄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하며 희망찬 하루를 살아 가본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집에 가서 봄옷을 꺼내 입고, 한껏 축구를 하며 뛰어놀 것이다.

> "희망찬 하루"는 너무 마음에 없는 말 같아서 문장에서 제외했다.

<필자 메모>

앞서 말했던 내가 '때린 후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다. 그리고 그 후배를 잘 대해 주기 시작했던 것이 그때부터였다. 선배들한테 갈굼을 당하고 있을 때면 빠져나오게 해줬고, 버스에서 내려 단둘이 걸어갈 때면 반말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처음엔 껄끄러워하더니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반말은커녕 욕까지도 곧잘 했다.

민재는 규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1살 형에게 존댓말을 했던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다운 실수를 하고, 초등학교가 의문을 가질만한 것들에 질문을 던졌던 것뿐 인데, 선배나 코치는 그것들을 부정하며 폭행과 탄압으로 무마했다.

최근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민재는 초등학교 때의 자유분방함은 사라져있었다. 야구부에 제법 잘 적응한 듯하다.

여기서 적응했다는 말은 정말 잘 적응했다는 것이 아니라 탄압 속에 자신을 억누르고 숨기는 것에 적응이 잘 됐다는 뜻이다. 나의 선배도 그랬을 것이고, 나도 그랬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곳에서 야구를 시작하는 초등학교들도 다 그럴 것이다.

얼마 전에 학교에 야구부가 왔었다. 일전의 나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낯선 사람을 싫어하고, 어른인척하지만 실은 초등학교처럼 유치한 학생들 말이다.

왜 그러는지 안다. 때문에 더 슬프다. 심지어 중학생들한테 연민을 느꼈다.



어차피 이 글을 보진 않겠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갈 모든 사람에게 유감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뭇 같은 구조에 중지를 치켜세워 보여주고 싶다.

> 총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개가 들어가 버리니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어정쩡해지는 것 같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줄이고, 임팩트 있게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하고, 상황을 당시의 일기를 추가했다 = 필자 메모 재구성(작품 확인)

## 8) 2차 퇴고

### (1) 퇴고 전 평가

1차 퇴고를 진행한 후에 소수의 선생님, 학생을 대상으로 2차 퇴고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2차 퇴고의 중점이 된, 평가받은 내용을 신도록 하겠다.

### 학생 평가 - 익명

사실 고성일이 처음 논문 주제를 바꾼다고 했을 때 저는 '앵?'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일기를 쓴다는 이야기나 희미하게 들었지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 논문을 꽤나 진행해 가는 상황이었으니 더욱 놀랍기 그지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랐을 때 본 글이 바로 안녕과 후회에 중간에서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들었던 일기를 자주 쓴다는 말처럼 읽어본 글은 저라면 그냥 흘려보낼 일상의 사소한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쓴, 꼭 일기 같은 글이었습니다. 그 뒤로 논문 글을 다 쓰면 보내달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평가를 맡게 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글이라는 것이 평가할 수 있는 분야인지 잘 모르겠으니 이 뒤는 그저 제 감상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머지 글들을 모두 받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받아본 글들은 여전히 담백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으며, 모두 마지막에 가서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들 같았습니다. 깨달음이라 해서 양자역학같이 어마어마한 발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의 고성일을 되돌아보며 현재의 고성일이 하는 이야기는 작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솔직해서 슬그머니 '나는 그런적 없었나.' '나도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들고 맙니다. 비로소 '나'라는 글을 보면 꽤나 민감할 수 있는, 혹은 과거의 저가 부끄러워 숨기고 싶을 수도 있는 이야기 또한 그저 제가 할 이야기를 한다는 듯이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글이나 일기라는 것이 원래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말하기 불편한 진심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묘미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적힌 글을 보면 우리는 또 부끄러워서, 혹은 껄끄러워서 잊고 있던 언젠가의 비슷했던 본인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 아닌지요.

앞에서부터 줄곧 일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왜, 화려한 수사나 비유, 표현법이나 아름다운 문장이 없어도 솔직하게 쓴 다른 이의 일기를 몰래 읽어보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까. 보내준 다섯 편의 글을 읽는 동안 꼭 다른 이의 일기를 보듯 빨리 읽어서,

괜히 더 보내준 건 없나 메일창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쓰일 글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오래 썼다고 희미하게 들었던 것을 떠올리니. 글도 오래 써주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보내준 다섯 편의 글, 무척이나 즐겁게 읽었습니다.

## 학생 평가 - 황석연

### 고운말

음.. 재밌네요.. 일단 문체가 신박하군요. 언뜻 보기엔 되게 투박해 보이는데 이게 또 읽기도 쉽고 재밌어요. 뜬금없이 일성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문체랄까..? 고운말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도 좀 궁금해지는 글이에요. 그리고 뭐.. 일성씨는 충분히 '재밌는 사람'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 비로소 '나'

주제가 꽤나 무겁군요..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 요소를 군데군데 넣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인트로 부분은 '문학적으로 읽히고 싶다'라는 의도로 적힌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적절성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랑스런 표현들도 몇몇 보이네요. 내용이 솔직하고 담백해서 좋아요. 자신의 아픈 기억을 꺼내 되돌아보며 자신의 생각을 톡톡 엮는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흥미롭고 읽기 쉬우며 좋은 것 같아요. 글 마지막에 필자의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 새출발

글의 내용이 너무나 솔직해서 놀랐습니다. '솔직함'만으로 타인의 심금을 울리는 글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심각한 번민과 고뇌의 과정을 실감나게 적어 놓았습니다. '숨기지 않는다. 솔직함이 나의 무기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쓴 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글에서 말하듯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로 논문의 방향을 바꾼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조심스레 공감해 보기도 합니다. 이토록 좋은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간디인이라면 누구나 이 글을 보고 격하게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장의 표현법이나 전체적인 요소들에 감히 지적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인트로 부분입니다. '비로소 나'와 반대로 조금 투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표현을 조금 유연하게 바꿔보면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 드려봅니다. 설사 표현의 유연성을 과하게 추구하다가 글의 매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되어 조심하라고 당부의 오지랖도 조금 부리겠습니다. 일성씨와 함께 어미 새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까지 수강했던 본인은 글의 모든 내용이 다 공감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본인의 미숙함과 무지를 질책해 보기도 합니다. 글 잘 봤습니다.

### 이번만큼은 뼈에 새기리라

멋있어요! 끝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하라는 응원 보내고 싶네요. 원하는 것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잖은 역경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굳세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면 좋겠네

요. 글에도 나와 있듯이 열심히 솔직한 글을 쓰다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저는 이 글에 매료되었고 말이죠.. 물론 글에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요소들에 신경 쓰다가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길 바라요. 충분히 사랑스러운 글이니깐요!

## 선생님 평가 - 안지선 선생님

### 새출발 (논문 방향을 음악에서 글쓰기로 바꾼 것)

- 수필 자체만으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할 지 감이 안와서 성일이의 본문을 참고해서 피드백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참고한 결과, 성일이가 논문(수필)에 담아내려 했던 핵심은 '강한 어조가 조금씩 사라지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깨달음(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새출발'이라는 작품은 그 전에 하던 드림 논문에서 성일이가 전부터 하고 싶었던 글쓰기를 논문 주제로 바꿨던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문장도 깔끔하고, 성일이가 추구하던 담백한 어조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읽기 수월했고 중간중간에는 성일이의 생각에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일이가 담아내려 했던 교훈이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인지, 아니면 단순히 논문을 바꾸게 된 과정에 대한 서술인지 조금 모호했기 때문에 성일이가 논문으로 담아내려던 그 목적에 부합 한지는 의문이었습시다. (물론 수필이라고 모두 교훈을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일이가 논문의 방식을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교훈을 적고 싶은 것 같아서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수필은 '붓 가는대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는 장르가 맞습니다. 그러나 붓 가는대로 쓰기 때문에 독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신의 tmi만을 나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길을 잃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 구성, 표현'과 같은 방식에 조금 신경을 쓰는데 성일이가 원하던 1-10의 구성과 표현을 점검해보며 글을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 개인적으로 이 글이 성일이의 감정을 절제 하면서, 적절한 비유도 들어가서 완성도가 높은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별은 흠씨와 같은 새출발'과 같은 문장도 성일이의 감정에 잘 맞는 표현법이었던 것 같았고 성일이가 떠나는 뺨을 보낼 때의 감정이나 상황이 그려져서 좋았어요. 근데 성일이의 글을 읽다 보니까 “”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구분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는 대화에서, ‘’는 인용이나 자신의 생각 강조할 때 쓰는 부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 부호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서 쓴 건지 궁금했어요

### 고운 말

-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용기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일이와 친구들의 생생한 대화에서 생동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욕을 안 쓰게 됐다는 게 끝인지 ... 뒷이야기가 더 듣고 싶었던 글이었습니다. 욕을 안 쓴 후 달라진 자신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궁금했던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독자를 궁금하게

만드는 게 의도였다면 성공한 것 같네요

### 이번만큼은 뼈에 새기리라

- 논문과 일기의 연관성과 관련된 글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논문이 수필이므로 자신의 일기감이 중요한 소재와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 글을 썼던 것 같은데, 맞나요?  
'새출발'의 후속편이라고도 생각 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별다른 피드백이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말들의 반복이 될 것 같아서 ^^ '어쨌든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난 다시 이렇게 일어났다'와 같은 부분의 수정?만 조금 하고 띄어쓰기만 좀 다듬으면 될 것 같네요. 이 글의 피드백은 패스

### 비로소 '나'

- 앞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대구를 이루며 성일이의 인생에서 겨울이 그치고 봄이 온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문단을 보면서 성일이의 문학적 감수성이나 능력에 감탄을 했어요. 이 글은 다른 글과 달리 유난히도 수식이나 비유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서 조금 새로웠어요. 수식에 집중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글이 장황한 만연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하면서 봐야할 것 같아요 ^^  
성일이도 저도 담백한 글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의외의 글 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글을 짧게나마 피드백 했지만, 성일이와 긴 대화를 나누거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피드백을 준 것이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성일이가 작가 데뷔를 해서 독자의 심정으로 글을 읽었더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논문이라는 부수적인 조건이 따르게 되므로 저도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일이의 글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나, 작가와 같은 모양새를 내려고 했던 노력이 보인 것 같아서 나름 신선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을 쓰면서 성일이만의 문체나 구성을 찾아갈 것 같아서 기대됐고 성일이의 솔직한 생각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가고 성일이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솔직하게 풀어냈지만 과감하게 더 자신을 드러내도 좋을 거라 생각되기에 주저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성일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 감기 걸린 상황에서 비몽사몽 피드백을 써내려가네요, 의식의 흐름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감안해주세요! 궁금한 것은 전화로 물어봐도 좋아요 ^^)

### 선생님 평가 - 김수진 선생님

비로소 '나' -

1) 이 글을 쓸 때 성일이는 무슨 책을 읽었으려나 사뭇 궁금해져. 여전히 느끼는 거지만 성일이의 단어들은 요즘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거든. 마치 5~60대 아저씨들이 자신의 유년시절을 생각하며 쓴 글 같다는 느낌일랄까? 군대문화와 비슷했던 야구부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가령 이런 것들인거지.

아서라, 안착, 시골짜('시골+골짜기'겠지?), 업보, 정감 등등...

사용하는 단어며 문체가 여느 고등학생 같지는 않아. 특히 한자어들이 유독 눈에 많이 보여.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좋은데... 5% 정도 아쉬운 느낌이랄까? 왜 그런거 있잖아. 학생이라면 왠지 이정도의 단어는 사용해줘야 할 것 같은 느낌. 뭐 그만큼 책도 많이 읽었고, 일기도 꾸준히 쓰고, 그만큼 또 글을 자주 쓰기도 하고, 야구부를 거쳐 간디학교에 와 생활하면서 얻은 것들을 포함해 이만큼 성일이는 성장을 했다는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 거라...

백일장에 내는 작품이었다면 왠지 상 하나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이 작품은. 학생백일장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한자어를 좋아하거든 ^^

2) 이 작품의 경우엔 시선(장면)이 바로바로 바뀌거든? 하지만 수필의 경우엔 시선이 많이 바뀌더라도 부드럽게 바뀌는 게 좋아.

겨울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야구 이야기를 해. 그러다 갑자기 포장마차 아주머니 얘기를 하고 연이어 연우 어머니 타로 이야기를 했다가 본래의 장면인 겨울이야기로 오거든.

아쉬운 부분은 포장마차 아주머니에서 연우어머니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야. 정감넘치는 아주머니이야기는 그저 연우 어머니가 해주신 정답고 사람을 좋아하고 등의 말을 꺼내기 위해 가져다 쓴 이야기인지, 아니면 포장마차 아주머니와의 에피소드를 부각시키기 위해 연우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넣은 것인지 좀 헷갈리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서술하든, 아니면 포장마차 아주머니와의 이야기와 연우어머니 이야기의 사이에 좀 더 설명을 해주든 하면 좋을 거 같아.

**고운말 -**

1) 다... 쓴 건 아니겠지?? 상현쌤이 해주신 말씀도 약간 하다가 잘라먹은 느낌이고, 민혁이와의 에피소드 이후에 '이거면 됐다'로 바로 끝나는 것도 그렇고... 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아직 쓰다 만 느낌이네?

2) 욕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가장 첫 문장이었던 '사람&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내 생각엔 욕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사람&관계가 바뀌었는지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뭔가 깔끔하거나 심플한 글을 쓰고 싶었겠지만 해야할 이야기를 다 했다면 모를까 욕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민혁이 가 한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라는 말로 대신할 순 없을 듯 싶어.

3) 재밌는 > 재미있는. 재밌는을 써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재미있는이 맞는 표현이므로 바꾸면 좋겠다.

## 새출발 -

이것역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끝난 느낌이 들어. 작가메모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썸은 작가메모의 말들도 작품안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논문 주제를 바꿨다'

는 말은 진짜 임팩트가 크거든. 그런데, 그리고 끝이야. 임팩트가 큰 만큼 부연 설명이 앞에 있었다면 괜찮은데 어떤 설명이나 서술 없이 그렇게 끝난거지.

극장에서 막 긴장감 있게 범인을 쫓고 있는 형사가 나오는 영화를 보는데 바로 뒷자리에서 '진짜 범인은 OOO고, 형사가 결국 잡긴 하더라'라고 말해버렸을 때의 그 허무함이랄까?

간결해진 문장들을 읽으며 '오~ 성일 좀 썼는데?' 하면서 긴장을 바짝하고 있는데... 그냥 끝난 거지.

그래서 너의 일기 중 일부가 들어간 거겠지만, 일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의 작품인 글 안에 바꾸게 된 이유라던가, 아님 바꾸었더니 이렇게 편해졌다라거나, 바꾸고 나서 달라진 너의 자세 등등의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

##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

더 이상의 퇴고 없이 강 이렇게 끝내도 될 듯. 켈 마지막 문장인 '슬프고도 정다운 안녕의 한마디.'를 읽는데... 소름이~~ ㅋㅋ 그래도 후조&경수쌤이 너의 완성된 논문집 속의 이 글을 읽으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하는 생각이 든다.

총평)) 문장이 많이 간결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깔끔해졌다는 '특급칭찬'이야. 그만큼 많이 쓰고 고치고를 반복했다는 얘기겠지? 작품수가 줄어든 건 아쉽지만 너의 작품속에 너가 살아왔던, 간디학교에서 지내왔던,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 낼 수 있다면 작품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위의 뭔가 하다 만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아쉬워. 이대로 마무리 할 거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또 이만큼의 말도 해줄 수 있는거겠지? 애 많이 썼네. 지금까지 이만큼 크느라~ 앞으로 더 많이 크거라 우리 성일이!

## (2) 2차 퇴고

2차 퇴고는 1차 퇴고 과정처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겠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제외하곤 1차 퇴고처럼 많이 수정 하지도 않았고, 자칫하면 본문의 양을 늘리려는 속셈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퇴고 까지 쓸데없이 세세하게 서술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목차에서는 크게

수정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수정하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받고도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선쌤에게 코멘트 받은 '본문에 기재된 형식과는 다른 수필'인 <새출발>은 일부러 다른 형식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받고도 수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수진쌤에게 지적받은 <비로소 '나'>의 시점 전환과 단어 선택이다. 이 부분도 크게 수정하지 않았는데, 이 단어들과 시점 전환이 오히려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수정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고운말' 같은 경우는 글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제법 있었다. 그 중에서 내가 바뀐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꽤 있었는데, 그 평가를 반영하여 바뀐 후의 내 모습들을 썼고, 이로 인해 바뀐 나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리고 필자메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수정을 하였다.

'고운말'을 제외하고는 내용적으로 크게 수정한 글은 없다.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들을 수정했으며, 글을 진지하게 다시 읽어보며 당시의 감정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맞는지 되짚어 보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수정했다. 사실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되고한 부분들이 제법 있긴 하다.

## 9) 3차 퇴고

### (1) 전문가 평가

3차 퇴고는 전문가에게 글을 보내어 평가를 받은 후, 그것을 기반으로 수정하였다.

#### 전문가 평가 - 서울예대 문창과 94학번 최명진

성일군, 안녕하세요.

먼저, 성일군의 글을 읽을 기회를 얻어 영광입니다.

긴 호흡으로 글을 써내는 작업이 쉽지 않은 일인데,

논문주제로 정했다는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냉정한? 평가를 보냅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1. 어떤 형식의 글을 쓸 것인가.

보내준 글은, 수필(에세이)형식이네요. 수필이 접근하기 가장 쉽지만, 반대로 잘 쓰기는 가장 어려운 장르입니다. 개인의 경험 이상의 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일군은 일반학교의 청소년이 아니기에 그것에 포커싱한 글이라면 수필형식도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 2. 어떤 내용의 글을 쓰고 싶은가.

찬올이에게, 성일군이 메일을 보낼 거라고 전해듣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내용.

이것은 글을 잘 쓰고, 못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활자매체보다 영상매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요. 누군가에게 흥미를 유발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은 크게 호응을 얻기 어렵습니다.

## 3. 어떤 화법(문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어떤 화법으로 전달하는가는 쌀밥을 밥그릇에 담을 것인지, 접시에 담을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더 보기 좋고 먹기 좋을까요?

이것은, 사실... 많이 먹어보면 알게됩니다. 일반적인 밥은, 밥그릇이 편하지만 카레밥은 조금 오목한 접시가 편하겠죠.

사실, 좋은 글을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읽고, 모방하여 써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던 무렵에는 쉬지 않고 그 작가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류의 글들을 많이 적어보았습니다.

창작의 시작은 모방입니다. 다만, 그 모방의 작업이, 땅을 탄탄히 다지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스킬)만 쫓아서는 안됩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소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적었던 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원고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기에 스캔을 해서 보내려다가 말고 그냥 글로 적습니다.

### [들어가는 말]

'만무'라는 단어는 '절대 없다'는 뜻인데 이 글의 문맥상 '난무'를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말'에 내용이 "읽기 싫으면 읽지마, 난 쓰고 싶어서 쓸



테니" 이런 느낌인데요. 물론, 지금의 '고삐리'는 이런 호기로운도 괜찮지만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에 대한 배려는 기본입니다.

(독자를 타겟팅해서 써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듯 하네요. 가령 제천간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 전하는 글, 혹은 드림을 연주하는 십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글 등등)

[말 한마디]

'모멸감'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외려 문맥상 '환멸감'이 맞을 듯 합니다.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이 글을 읽는데 감정이 이입되어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제주에 계신 쌤들은 잘 지내시는지, 저도 가끔 궁금하네요.

쌤들을 '어미 새, 아빠 새'로 표현한 것도 좋았습니다. 이 글은 제천간디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읽고 나면 먹먹해질 것 같아요.

'우리(짐승)'는 '둥지(새)'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라는 말은, 요점만 간단히 한다는 의미가 크기에

이 글의 문맥에서는 '컷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운 말]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당시 나로서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것이었다'

->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당시 나로서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 출발]

'아니나 다를까 들려 잔소리'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수정해야 겠네요.

(이건, 글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제가 찬울이한테도 늘 말하지만, 일반학교의 아이들이 대학을 쫓아가는 동안 너는 간디학교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행복한 일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주는 멘토가 옆에 있으면 좋을텐데.

드럼도 꾸준히 더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안에 가두지 말고, 어떻게든 자꾸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비로소 '나']

'금방 봄이 올 것이라 믿었지만 아서라 입춘이 보름이나 지났건 만'

'만'이 반복되면 정확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문장을 둘로 나누거나, 주어와 서술어만 두고, 나머지는 다 빼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장은, 간결할 수록 좋습니다.

문장의 호흡이 길면, 본인이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글을 쓰고,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꼭 필요한 문장만 남기고 버리는 연습을 하다보면, 좋은 문장을 가려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양한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는 것 외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본인만의 독창적인 시각과 시선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성일군의 글을 읽을 때 문학적, 문법적 완성도 보다 성일군만의 색깔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에 적는 것이라, 정리가 잘 되지 않네요.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전문가 평가 - 작가 이덕래

### 글쓰기라는 좋은 습관

- 고성일 학생의 에세이 7편을 읽고

글에는 글쓴이의 에너지와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특히 에세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일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적인 정서가 느껴져서 편안하게 읽었습니다. 성일 학생이 지향한 솔직하고 목직한 글쓰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문장에는 불필요한 기교나 비문이 거의 없고 담백합니다. 7개 글이 수준 편차가 크게 없이 안정적입니다. 많은 퇴고의 성과가 보입니다.

성일 학생은 이제 글 쓰는 것 자체에는 별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써야 할 것이 주어지거나, 쓰고 싶은 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안타깝게도 글 쓰는 걸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랜 일기 쓰기의 습관이 아무래도 크게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일 학생이 들인 노력만큼 실력도 꾸준히 향상된 게 분명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좋은 문장, 풍부하고 매끄러운 단어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많이 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잘 모르지만, 독서의 성과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안정적인 문장을 쓸 수 있다면, 좀 더 이야기를 꾸며 보는 노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기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 쓰는 게 글입니다. 이왕이면 더 재미있게 읽힐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이야기 구성을 통해 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반영된 글이 '비로소 '나''입니다. 야구부 시절을 얘기하면서 후배인 '민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배를 때린 '사건'이 나오고 그걸 통해 느낀 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슬픈 실화라서 미안하지만)에는 사건이 있고 독자가 응원하고 싶은 주인공(성일, 민재)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글에 담긴 이야기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물론 너무 쓸데없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어야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고 자신의 비슷한 경험과 공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서 각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이게 영화감상과 독서의 큰 차이입니다). 구체적일 수 있다면 공감을 끌어내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기는 튀고 싶고 개성 있고 멋진,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걸 하고 튀고 싶은 시기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표가 나타나 점점 커지고 급기야 그게 자신을 짓누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혼란스럽고 괴롭습

니다. 그런 걸 '정체성을 찾는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 시기를 누구나 겪게 되고, 대개는 요란하게 겪습니다. 그런 과정을 사춘기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논문 주제로 '드럼 솔로 창작'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울트라 캡송 신선한 소재를 선택한 것은 옛지있고 싶은 성일 학생의 자연스러운 욕구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에세이 쓰기'라는 지극히 평범한 소재로 돌아오기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신선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소재입니다. 성일 학생의 글 '새 출발'에 이 과정의 고단함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지만 평범합니다.'

이건 매우 김빠지는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특별함을 추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평범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함을 통해 개성과 능력을 키우면서 평범함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함과 공감, 그리고 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간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로 논문을 쓴다는 것은 일견 평범하지만, 성일 학생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특별합니다.

성일 학생의 글을 읽다가 오투기가 떠올랐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다가 다시 똑바로 서는 오투기. 우리는 흔들립니다. 맨날 흔들리고 어느 날은 더 심하게 흔들리곤 합니다. 왜 흔들리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웬만하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성일 학생의 글을 읽다 보니 이제는 흔들려도 제자리로 잘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특히 잘 드러나는 글이 '비로소 '나''입니다. 이제 성일 학생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견고한 자기중심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투기처럼 중심을 잡았으니, 이제는 나 이외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깥세상에 대한 탐색(그것을 뭐라 부르든)을 일기를 쓰듯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책을 꾸준히 읽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탁월함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일 학생을 응원합니다.

"젊었을 때 형성된 좋은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 아리스토텔레스

## (2) 3차 퇴고

늦게 시작한 논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에게 처음 받은 평가이다. <새출발>의 평가글을 보면, 찬을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다. 사실 새출발의 결론은 희망적인 것이기도 하고, 지금의 나는 정말 멀쩡한데, 어머니는 내가 아직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았다.

그런 평가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보니, 글에서는 '희망'이나 '나의 새로운 심리 상태'가 묘사되어 있지 않았다. 수진쌤에게 지적 받은 부분도 이것 인 듯 했다. 아차 싶었다. 그래서 뒷 부분에 바꾸고 나서의 나의 심리 상태, 마음가짐을 담음으로서 그 끝은 희망적임을 강조하였다.

들어가는 말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다르게 어머니께 해석이 된 것 같아, 들어가는 말을 수정하였다(작품 확인).

그리고 문법 지적 받은 것을 수정하였다.

## III. 결론

### 1) 간디인 평가

#### 15학번 김한별

내가 뭐 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읽으면서 많은걸 느끼는 사람은 아니지만 읽어보고 싶다고는 했으니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들어가는 말에서 간지 나는 글을 찾아왔다면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머리가 멍하게 “아!” 할 것 없이 편안하게 읽었다.

글을 읽다가 어쩔 때는 일상의 대화가 재미있다가도 어쩔 때는 정말 보이지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돼서 새롭기도 하고 공감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슬프고 힘든 건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감추고 있던 것을 보게 되어서 그런지 글이 좋았다는 생각보단 진짜 고성일을 봐서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 익명 평가

나에게 누군가의 글을 평가 할 정도의 역량은 없기 때문에 평가보다 감상평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낫겠다. 시작부터 독자를 향한 글이 아니라고 하니 글과 내용의 깊이를 떠나 더더욱 필자를 떠올리며 글을 읽었다. 본인 중심의 이야기가 읽는데 부담을 덜어줬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읽는 이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도록 부추긴 글이 아니어서 진심이 드러났고 편했다.

글의 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단편적으로 끊겨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일기를 기반으로 한 티를 좀 더 냈어도 좋았을 듯 싶다. 일기를 전달의 방식으로 한 건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 굉장히 좋았다. 당시 썼던 일기의 부분을 발췌하고, 그것에 대한 글을 쓰고, 마무리에 필자의 메모까지 있는 구성도 좋았다. 독자를 위한 글이 아니라고 했지만 상당히 친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찾아 읽고 싶을 만큼 재미를 유발하는 글은 아니었다. 그럴 의도도 아니었겠지만. 글을 읽으며 내가 보냈던 시간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건 내가 글에 몰입했기 때문이겠지! 문장 하나 하나가 깔끔하기도 했지만 글 하나하나가 솔직했고 극적인 회개 느낌의 끝맺음이 아니어서 와 닿았다. 솔직히는 글 자체에 대한 기대는 없었는데 조잡한 느낌 없이 잘 써 놀랐다-^^

## 16학번 신주현

성일이의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든 생각은 ‘아 이 친구 또 이러네.’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들어가는 말’부터 현란한 글 솜씨로 자신의 부족함을 어필하고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을 비춘 것. 그럼에도 스스로의 기준인 솔직함과 묵묵함을 고수하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씩 덩덤히 풀어낸 글들을 보며 읽는 내내 감탄했다. 어쩌면 자신과의 싸움의 과정이었을 논문과 긴 기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을 성일이에게 먼저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일기를 통해 글감들을 뽑아내 글의 방향을 결정하고 풀어냈다는 것이 놀라웠다. 차근차근 기록해온 덕에 이런 좋은 글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 된다. 형식에 있어서 필자 메모 또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있는 느낌이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이색적인 시도라 좋았다.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성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모두가 쉽지 않아 하는 일일 것이다. 단순 필력이나 ‘잘 쓴 글’을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관찰과 생각들을 잘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잘 담긴 글인 것 같아 좋았다. 읽는 내내 남의 일기를, 그리고 나의 일기를 마치 훑쳐본 느낌이었다. 성일이의 이야기였지만,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스스로의 생각들이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잘 묻어있어 담백하면서도 직설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진지함으로 하여금 독자에게 솔직함과 진심을 더욱 더 가까이 전해준 것 같다.

무엇보다도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성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일이의 모습 그 자체였다. 논문 때문에 무너지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들, 후배를 때린 일을 영원히 묻고 싶은 일일 수도 있음에도 꺼내두며 반성하는 모습, ‘아, 진짜. 너 혼자 좀 해!’하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기도, 여러 고민들을 안고 결국 욕들을 삼가게 된 사연들도. 모두 단순한 수치심만 느끼고 숨겨둔 것이 아닌 한 발 나아간 용기 있는 내딛음이 아닌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스스로의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성일이의 글로써 이렇게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인간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기쁘다. 이런 글들이 정말 ‘좋은 글’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말 고생 많았어! :)

### 15학번 임다운

정말 깜짝 놀랐다. 명해지는 기본이었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성일이의 이미지를 뒤엎을 수 있는 멋진 글이었다. 때로는(대부분은) 행동이 거침없고 장난기 많은 녀석이지만 내가 보지 못한 방향의 또 다른 성일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있어 보이기 위해 온 것 거추장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해 포장한 수많은 수필들보다도 성일이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 놓은 귀여운 글들이 더 읽기 좋았다. 글을 읽으며 내 생활이나 모습에 대해서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꾸준히 일기를 써오며 일상을 기록해오던 습관이 있던 터라 아련 작품이 나 올수 있었지 않나 생각해본다. 남들보다 속도가 많이 늦기는 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성일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음.. 그냥 본인의 글을 포함해 하고 있는 일들에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고!성!일! 파이팅 수고했다 마

### 15학번 홍수정

글은 전체적으로 쉽게 읽혔다. 성일이의 마음속의 말들을 그냥 성일이의 어투로 말하는 것 같이 글을 쓴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다. 글이 전체적인 바탕은 논문을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하는 마지막 글을 쓸 때까지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짧은 시간을 글로 풀어썼음에도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다. 내가 느끼기에는 성일이의 글은 잘 쓴 글이었다. 솔직함이 묻어나와 모든 마음이 들어나는 따뜻한 글이었기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 2) 책자

### (1) 표지



### (2) 제목, 들어가는 말

책자의 제목은 <못 쓴 글>이다. 책자의 들어가는 말을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은 객관적 시선에서 봐라 봤을 때 ‘못 쓴 글’ 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글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글이고, 글을 쓰면서 자신이 발전하고 변화 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에, 나한테만큼은 좋은 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있다.



### (3) 속지 디자인

(왼쪽~ 오른쪽 순서) 1- 들어가는 말 / 2- 글 시작 부분/ 3- 목차/ 4- 필자메모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못 쓴 글이다

생애 처음 내보는 글 집 첫 문장에 이런 말을 쓰긴 뭐하지만, 당신이 '잘 쓴 글'을 보기 위해 이 책을 펼친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물론 나도 10여 개월간 열심히 쓴 글의 독자가 줄어드는 것은 탐탁지 않으나, 이 글은 '잘 쓴 글'을 모색하는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나도 한때 '잘 쓴 글'을 갈망했다. 수려한 문장 임팩트있는 내용, 머리를 '탁' 치며 "아 이거다" 하는 그런 글 말이다. 하지만 그런 글이라고 다 좋은 글일까? 많이 고민했다. 제아무리 잘 썼다고 극찬을 받는 책도 1점짜리 혹평이 난무했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글들이 '명수필'이라며 몰아다녔다. 절대적인 것은 없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준 속에서 나는 '솔직함'과 '목적함'을 선택했다. 어떠한 걸치거나 기교 없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방식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고, 내 이야기를 표현할 방식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하고픈 이야기를 무엇보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았다. 대신 쉽다? 무언가 아쉽다 싶으면, 딱 거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이다.

4

#### 차례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못 쓴 글이다 - 4

새 출발 - 8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 16

말 안 다디 - 22

그런 말 -

어떤만큼 보여 세 기록라 -

베르소 '나' - 36

6

#### 안녕과 후회의 중간에서

새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그 많은 종류의 새 중에서 특정 새들만이 무리, 즉 공동체를 이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 간다고 한다.

어미 새는 매우 수요일이면 장을 보러 가곤 했다. 장을 막 보고 온 친환경 식자재들이 실린 온색 스타렉스가 학교에 도착할 때쯤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설마 '그' 차는 아니겠지"

우리는 식자재가 실린 차를 '그' 차라고 했다. 마치 해리포터에서 등장인물들이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듯이, 시간과 꽤 많은 힘을 들여 날라야 하는 식자재 차를 두리썬의 대상이라 여겨

16

"간디학교에서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서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수업 때 배운 거 까먹지 말고 잘 써먹길 바라요"

이 역시 구수찬 사투리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관 두셨죠. 마음이 텅텅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곤 비로소 실감했죠. '마지막이구나'라고. 억척같이 미웠던 기억마저도 정다운 추억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말 안 듣는 통감아 지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이로 제 기억 속에 남아주셔서. 저를 변화하게 만들어 주셔서.

"안녕히 가세요"

슬프고도 정다운 안녕의 한마디.

21

#### (4) 최종 교정교열

16학번 동기 황석연과 이은정 선생님, 안지선 선생님께 최종 교정교열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20가지 정도의 오타가 발견 되었고, 수정하였다. 들어가는 말도 수정했다. 원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읽힌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거친 후에 제본 업체에 제본을 맡겼다.

### 3) 자기평가

모든 것은 내 탓임을 잘 알고 있다. 논문을 늦게 완성한 것도.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번거로움이 있던 것도. 나의 탓이다.

하지만 글이 너무 안 나왔다. 노트북을 켜놓고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새벽 세시를 넘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물론 낮에도 썼지만 안 나온 것이다), 낮부터 새벽까지 쓸 정도로, 생활패턴이 바뀔 정도로 열심히 썼던 시기가 있었지만, 글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항상 논문을 생각했다. 다른 무언가를 할 때에도 한 번도 논문 생각을 안해본 적이 없고, 물론 전부 인과응보지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나는 너무나 괴로웠다. 논문은 늦어졌지, 여기저기서는 한심하다는 비판은 쏟아지지, 글은 안 나오지, 괴로운 삶을 살았다(핑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마냥 게으름을 피운 줄만 알고 있어서, 하소연해본다).

하지만 나는 끝끝내 '나에게 좋은 글' 6편을 써냈다. 이 글들은 '여유로운 일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급하게 논문을 썼다면 지금의 글들은 없었을 것이다(빨리 끝내기 위해 대충대충 한 여느 논문처럼 쓰기는 싫었다).

내 논문과정 11개월 중 9개월이 글을 쓴 기간임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좋은 논문을 쓰기위한 나의 속도였던 것 같기도 하다.

글을 집필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한 문단을 가지고 몇 주를 끌기도 하고, 글을 쓰기 전 '구상'만 1달 이상을 하기도 한다. 긴 시간만큼이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나간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값진 시간이었다. 내가 간과하고 살았던 '나'에 대해 돌아보는 것만큼 의미 있던 과정은 없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진짜 좋은 글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가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좋은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논문에서 글이란, 과거를

성찰함으로서 나에 대해 들여다보게 해주고, 잊고 살았던 ‘나’를 꺼내어 주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 글들은 나의 ‘일부’라 봐도 무방하다. 글이란 것이 좋은 것임을 알았으니 앞으로 살면서 가끔씩은 글을 쓰려고 한다.

조금은 벗어난 이야기를 하자면, 글 실력이 늘었다. 처음엔 한 글에 3달씩 걸리던 것이 2주, 1주로 줄더니 3일이면 글 하나를 완성시킬 정도까지 왔다. 예전보다 글쓰기가 쉬워진 것 같다. 이는 학교생활 하면서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 같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가에 부모님 평가를 넣지 못한 것. 부모님이 글을 본 것은 본문을 이미 완성 한 상태였다. 엄마는 나의 야구부 시절 이야기를 담은 ‘비로소 나’를 보시고는 울컥했다고 한다.

16년 동안 옆에서 나를 지켜봐왔던 것이 부모님이다. 아마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일 것이다. 그런 부모님의 관점에서 본 ‘아들’의 글은 어떨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논문이 끝나고라도 나의 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지만, 이 유의미한 과정을 본문에 싫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뭐, 때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껏 무언가를 혼자 완성해 본 적 없는 나에겐 이 논문이 굉장히 값지다. 주제를 바꿀 때 다짐했던 ‘의미 있는 논문’도 충분히 한 것 같고, 기존 3학년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논문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 논문이 늦어지며 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을 제외하면 정말 나에게 받은 변화를 가져다 준 좋은 논문이었다.

#### 4) 연구의 성과와 한계

성과는 위 <자기 평가>에 충분히 쓴 것 같다. 하지만 한계점을 써보자면, 글을 6점 밖에 쓰지 못한 것이다. 사실 계획 발표 때는 10작품을 말했지만, 최종 작품은 6개다. 구상 중인 글이 2개 정도 더 있었지만, 그 글들을 쓰지 못하고 마무리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두 번째로는 독자에게 교훈을 주지 못한 점이다. 보통 수필의 경우엔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혹은 교훈이 있다. 하지만 나의 글 실력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이야기를 쓴 것 같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이왕이면 독자에게도 좋은 글을 쓰면 좋지 않은가.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참고 문헌>

- 이석원. <언제 들어도 좋은 말>. 그책(2015). 356p  
이석원. <보통의 존재>. 달(2009). 386p  
장영희.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샘터(2009). 236p  
장영희. <문학의 숲을 거닐다>. 샘터(2005). 326p  
문티 솔츠, 바나비 콘라드. <스누피의 글쓰기 완전정복>. 김연수. 한문화(2012). 216p  
윤영선. <국어시간에 수필읽기 1>. 나라말(2000). 230p  
명로진. <베껴쓰기로 연습하는 글쓰기 책>. 리마커블(2016). 272p  
서미현. <창의적 글쓰기>. 대림북스(2013). 244p  
김진수, 김양희, 정대승, 나영미. <국어시간, 수필에 빠지다>. 비상교육(2013). 333p